



# 문화매일신문



제1505호

2023 / 12 / 19 / Tue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 윤석열 대통령,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 총재 접견

###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초, 물가 대응 등 경제정책 방향 지지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5일 오후 한국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컨퍼런스(12. 14~15)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접견했다.

대통령은 "게오르기예바 총재의 첫 번째 방한을 환영한다"며 "총재께서 IMF 공동 주최 국제컨퍼런스, 세계여성이사협회 포럼뿐만 아니라 한국 대학생들과의 간담회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들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경제와 사회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면서 게오르기예바 총재와 국제통화기금 방문단을 환영했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민생과 물가안정을 정책 최우선으로 두고, 건전재정 기조하에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민간주도 시장중심의 경제생태계 복원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하며, 최근 수출 반등 등 경기 회복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특성상 우리 기업들의 수출, 수주를 확대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세일즈 외교와 함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한국 정부의 민



간 중심 경제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등은 국제통화기금의 정책권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특히 그간 금융시장 불안 완화, 부동산 시장 연착륙, 물가상승 대응 등 위기 극복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내년에는 반도체 경기개선과 중국의 경기 회복 등으로 한국경제의 반등이 전망되며, 구체적으로 한국경제의 내년도 성장률은 2.2%로 예상하는데 이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보다 본격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통령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

대를 강조한 게오르기예바 총재의 의견에 동의하며 한국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 여성인력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조만간 기업 부문에서 여성 CEO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황제세와 관련해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일부 선진국에서도 은행 부문에 황제세가 부과됐으나 캐나다의 경우 은행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배당 관련 세입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황제세보다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방식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게오르기예바 총재가 취임 이후 코로나19와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국 국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도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 아래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의 신탁기금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면담을 마치고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하면서 한국과 국제통화기금은 국제사회 협력의 모범사례라고 언급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 중국 후난성 대표단, 경북도 방문

### 경북도, 농업기술원 방문을 통한 교류 협력 실무 논의

양치(杨琦) 중국 후난성외사판공실 부주임을 대표로 하는 천저우시(郴州), 장자제시(张家界), 주저우시(株洲), 창더시(常德) 등 후난성 각 지역 대표단 6명이 15일 경북도에 방문해 올해 양 지역 자매결연 5주년 우호 교류의 원만한 마무리를 했다.

이진원 경북도 외교통상과장은 대표단과 실무회의를 통해 금년 시행한 다양한 교류행사를 회고하며 내년 경북도의 교류 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2022년 후난성에서 성공적으로 치른 바 있는 경상북도-후난성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의 2024년 후난성 개최를 제안했고, 양치 부주임은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대표단은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스마트온실과 농업기술원 방송국 등을 참관하고, 기술원이 시행

중인 귀농창업활성화 교육, 농업정보 화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과 농촌교육 농장 운영에 큰 관심을 보였다.

양치 부주임은 "올해 경북도와 후난성이 자매결연 5주년을 맞아 자매결연 행사, 공무원 친선교류전, 기관 및 대학교 관계자 등의 상호 방문 등 풍성한 교류 성과가 있었다"라며, "앞으로 농업, 산업 분야에서도 내실 있는 교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원 경북도 외교통상과장은 "후난성은 최근 경북도가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자매도시"라며, "양 지역은 민간교류, 기관교류 및 기업 투자에 이르기까지 교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자매도시 간 협력·상생의 모범사례"라고 덧붙였다.

윤근수/기자



## 경기도, 글로벌 크리에이터 만남 김동연지사 "크리에이터들이 원하고 즐거운 일 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도울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인 미디어 천국 경기도'를 방문한 국내외 크리에이터들을 만나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체험하고, 크리에이터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크리에이터 페스타'에 참석해 "경기도민 모두가, 특히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원하는 일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 꿈 중에 하나"라며 "(크리에이터)여러분들이 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찾아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셔서 기쁘다. 하시는 일에 경기도가 작은 힘이나마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16일과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유명 유튜버 등 국내외 크리에이터 130여 팀을 초청해 '글로벌 스타 크리에이터가 다 모였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도 1인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성과 보고회 '경기 크리에이터즈 데이'를 진행했는데 이번 페스타는 이를 확장한 행사다.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크리에이터 축제인 '비드콘'의 한국판을 지향하며, 총 30여 개국, 130여 팀의 글로벌 크리에이터가 한자리에 모였다.

김동연 지사는 모로코 출신으로 한류를 홍보하는 구독자 130만 유튜버 김미소(Kim Miso)와 과학지식정보 전문 채널인 구독자 20만 유튜버 지식인미나리와 함께 솟품(짧은 영상 콘텐츠) 인터뷰 제작에 참여했다.

이어 G-크리에이터 응원 CM송을 전자약기 등을 활용해 제작하는 작업을 구독자 20만 유튜버 오맹큐(OTHANKQ)와 함께 하고, 경기도를

홍보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울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스페인어로 한국을 홍보하는 구독자 190만 유튜버 잭스 코레아나(JEKS Coreana) 등과 함께 촬영했다.

김동연 지사는 구독자 603만 국제 커플 유튜버 진우와 해티, 구독자 44만 유튜버 레바는 리나 핫산 등을 만나 챗-GPT로 제작한 외국인 크리에이터들의 한국 생활 에피소드 모음집을 증정하기도 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유튜브 시장 성장에 따라 2017년부터 우수한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선보이는 사업을 추진했다. 아카데미, 제작지원 등 육성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2천618명의 크리에이터를 양성했다. 경기도가 양성한 유명 크리에이터는 잔나코리아(214만), 조안나(178만) 등이 있다.

경기도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은 ▲입문, 단기, 실전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아카데미' ▲성장기 크리에이터를 선정해 제작비와 함께 컨설팅, 세미나, 협업 지원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작지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크리에이터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지역에 공익적 가치를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김병상/기자

## 전남도 완도수목원서 동백꽃겨울풍경 감상하세요

전라남도 완도수목원은 산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목포지역 윤창숙 작가의 초대 개인전('Blooming in winter')을 개최한다. 전시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다.

전시에선 동백꽃과 겨울 풍경을 주제로 한 수채화 25점을 만나볼 수 있다. 동백은 완도수목원에 자생하는 난대수종이자 12월부터 개화를 시작하는 대표적인 겨울꽃이다. 어린 시절부터 몸이 좋지 않았던 작가는 모든 꽃이 자취를 감춘 겨울, 홀로 피어나는

동백꽃에 자신의 삶을 투영시켜 자전적 그림을 선보인다.

주요 작품은 꽃송이 채 낙화하는 동백의 모습을 표현한 '낙화', 서양화에 한국적 소재를 집어넣어 새로운 시각 구도를 시도한 '기쁜 소식' 등이다.

윤창숙 작가는 공주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석사를 졸업하고, 목포미술협회, 목포환경미술협회, 목포·영주 교류전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진호춘 완도수목원장은 "이번 초대전을 통해 수목원 방문객이 잠시나마 지친



박중배/기자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표**

- 도약하는 지역경제
- 감성충만 관광문화
- 시민행복 맞춤형지
- 인재양성 미래교육
- 소통중심 공감행정

목포시



### 경남도의회, 창원 성산구 지역발전 유공자들 표창

박남용 의원, "행정이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 도움줘서 감사" 전해

경상남도의회는 12일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성주동의 주민 23명을 의회에 초청해 표창을 수여했다.

수여식은 박남용 의원(창원 가음정·성주동, 국민의힘)이 함께한 자리로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가음정동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주민들에게 그 공헌에 대하여 이뤄졌다.

박 의원은 "행정이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 발로 뛰며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도움줘서 감사하다"며 지역발전 유공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김진부 의장도 "표창장은 여러분의 헌신·노력에 대한 대담이자 상징이다.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표창에 대하여 박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봉사 정신과 사회 참여

를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얻은 공로를 인정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와 같은 표창은 주민들에게 큰 자부심과 격려가 되며, 앞으로 더 많은 주민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임을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수여식 뿐만 아니라 의장실 방문 및 본회의장 관람 등을 통해 의회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장재현/기자



###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2023 "목포맑음"최종보고회 개최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목포맑음'은 12월15일 2023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효상 회장의 사회로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참석 의원 모두가 1년 동안 "목포맑음" 활동에 대한 강평이 이어졌다.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목포맑음은 박효상 회장을 비롯해, 최유란 간사 외 조성호, 박수경, 박용식, 최환석, 김관호, 이형완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2월 연구과제 토론을 시작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총 7차 간담회와 전통시장 활성화 선진지 견학으로 전주시 남부시장을 방문했다.

주요 연구 활동 주제는 ▲원도심

주거환경 및 인구 변화로 인한 재래시장 상권의 변화를 토론 ▲전통시장, 빈집 정비 등 도심 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도출 ▲여성친화적인 원도심 활성화 정책 연구 및 활동 등이다.

23년 더 좋은 일터 만들기 포럼을 포함한 6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으며 목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요양보호기관 운영자, 요양보호사, 간호주무사, 간병인과의 간담회를 통한 보건 의료 및 돌봄종사자를 위해 더 좋은 일터 만들기 포럼에 박효상 의원과 최유란 의원이 직접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했다.

박종배/기자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재정 배분의 적합성과 효율성 제고, 예산 낭비 요소 개선 주문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12월 14일과 15일 양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심사 첫 날,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언 설명을 시작으로 실국원별 종합심사를 하고 둘째날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농업인들의 소득이 증대되면 농산물 가공 기업 유치와 육성이 중요하며 소관부서에서 기업 유치를 통해 농산물 수출진흥 및 농가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구미 울긋불긋을 사례로 들며 우리 쌀을 원료로 가공된 김밥이 수출되면서 농가소득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이러한 기업이 유치되고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경제·행정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전문적인 교육으로 유능한 공무원을 길러내야 함에도 예산을 반납한다고 질타하는 한편, 자치경찰을 홍보하는 대학생 엠버서더 사업과 관련한 실적이 부진하다며 성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 볼 것을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노후 소방장비를 분기별로 교체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며, 향후 재난 대응을 위해서 연초에 모든 장비를 교체해 연초 발생하는 산불 방재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은 장

비가 굉장히 중요하니 적극적인 예산 집행으로 최신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호광 의원(청송)은 내년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은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전쟁, 월남전 참전용사와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해 적절하게 예우하기 위해서는 명예 수당 인상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하며, 앞으로 소관부서에서 이에 대해 많은 관



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채아 의원(경산)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기금의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조성 목적과 다르게 대구시에 기금을 전출하는 예산은 허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도립예술단에 도민 열세 100억원이 투입되는 데 비해 예술단원들의 업무태만 등으로 성과가 미미하다며 이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일본 초등학교에 사용하는 모든 사회와 지도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들어있으며 독도교육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예산이 삭감됐다고 질타하는

한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콜택시 운영비 지원이 감액됐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운영비를 확대 지원 하는 방안을 찾아 볼 것을 주문했다.

도교육 의원(예천)은 지자체 총구매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된 의무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다며 질타하고 경북도와 경북교

육청에 구매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좀 더 적극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로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회적 역할, 책임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택시 감차 보상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비용 부담에 있어 시군의 비율이 높으며, 시군의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 감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도비의 비율을 높여 확대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농촌형 CCTV 최적 입지 분석 용역은 꼭 필요한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납됐다며 지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추

진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전통사찰과 같은 문화재들이 방치되는 사례가 잦다며 경북도가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대구경북 상생 협력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협력은 좋는데 행사 장소를 항상 대구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북에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시군이 많으니 앞으로는 경북에서 행사를 주최 해 볼 것을 주문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학생수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며,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수동적으로 따르지 말고 경북도가 능동적으로 대응책을 찾아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더 나아가 글로벌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역량을 집중 해 볼 것을 당부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소외되는 시골의 어머님들을 위해 경북도가 복지 인력을 증원하여 앞으로 공공차원에서 돌봄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청에는 다양한 인재가 모여 일을 해야 하는데 현재 채용시스템으로 인해 인적 구성이 특정 지역 출신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해 볼 것을 주문했다.

황재철 위원장(영덕)은 현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앞으로 평가를 제대로 해서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의 장은 사퇴하는 경우까지도 발생 할 수 있도록, 엄격한 평가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에너지 자원은 굉장히 중요하며 경북도가 에너지 주권을 위해 산업과 학교가 연계하여 동해안 에너지 벨트 인프라를 구축해 에너지 자립에 힘 쓸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부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스마트시티 리빙랩'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스마트시티 구현에 한걸음 더!

'VREW로 AI활용 영상만들기' 교육 및 실습 통해 역량 강화

부산광역시의회는 의원 연구단체 '스마트시티 리빙랩'이 지난 14일 'VREW로 AI활용 영상만들기'에 대한 교육 및 실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의원 연구단체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부산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시티 구현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다.

연구단체 회장을 맡은 임말숙 의원(해양도시안전위원회)을 비롯하여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박희용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 이순연 의원,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 등 총 7명이 참여하며 12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교육은 시의회 의원회관

지하1층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AI 전문가의 강의 후, 실습을 통해 의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부산의 스마트시티 리빙랩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임말숙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우리 연구단체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부산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구성됐다"며, "정책연구용역 추진과 부산 도시공사 사내 학습모임인 '스마트북(book)모닝' 활동 등을 통해 부산시를 시민 중심의 스마트시티로 만드는 날까지 끊임없이 연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혁신·성장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 혁신·성장 포럼'(대표 김정옥 의원)은 12월 15일 오후 1시 30분 의회 2층 회의실에서 소속단체 의원(대표 김정옥, 간사 박소영, 김원규, 류중우, 박종필, 윤권근, 이영애, 이태순, 하병로, 허시영,

황순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이영애 의원이 제안한 '대구시 여성친화도시 정책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와 류중우 의원이 제안한 '대구시 전기차 보급현황에 대

한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등 2건이었다.

보고회에는 계명대 여성학연구소와 대구정책연구원의 연구진, 시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연구의 발표자인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정숙정 선임연구원은 '각계 각층의 참여와 안전을 보장하는 포용적 여성친화도시 정책'과 '양성평등 전담 인력 확보 및 성평등 전문관 제도 도입'으로 대구시 여성친화도시 정책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에 이번 연구를 제안한 이영애 의원은 "여성친화도시 연구에서 타 지자체 및 국외 우수사례를 토대로 적용 가능한 정책을 확인해 본 것이 의미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발전 과정에 남여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을 모든 주민이 누릴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연구의 발표를 맡은 대구정책연구원 김수성 연구위원은 "대구시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와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연장 관련된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전기차 폐배터리 산업 육성과 친환경자동차 정비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연구를 제안한 류중우 의원은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한 대응방안 단계별로 잘 제시됐고, 오늘 연구결과를 활용해 대구시의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미흡한 점들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단체 대표인 김정옥 의원은 "이번 정책연구용역들은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연구기관이 제안한 여러 방안들이 연구로만 끝나지 않고 대구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울산시의회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 울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울산시의회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은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마땅한 규정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장례비·치료비 등 실질적인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에 따라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및 지원기준을 신설하고 지원대상 기준을 구체화 했으며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게 시장은 부담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원인제공자는 지자체가 청구한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게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이라며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의 신속한 지원과 조기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규진/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 임성경. 청소년책임보도사: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경 제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내선 (113)	부 동 산 부: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 리 언 부:내선 (118)
	스 포 츠 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대책 이행한 경기도, 내년부터는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추진

### 도, 올 3월 국가폭력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 최초 지급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김동연 지사는 공동기자회견 당시 "선감학원은 40년 전에 문을 닫고 사라졌지만, 지방자치 시행 이전 관선 도시사 시대에 벌어져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기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넋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2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신청자가 더 늘어나 예산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어도 할 테니까 다 (경기도로) 오셨으면 좋겠다"며 신청을 독려했으며, 실제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 경기도로 이사를 온 사례들도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2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신청자가 더 늘어나 예산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어도 할 테니까 다 (경기도로) 오셨으면 좋겠다"며 신청을 독려했으며, 실제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 경기도로 이사를 온 사례들도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2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신청자가 더 늘어나 예산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어도 할 테니까 다 (경기도로) 오셨으면 좋겠다"며 신청을 독려했으며, 실제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 경기도로 이사를 온 사례들도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2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신청자가 더 늘어나 예산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어도 할 테니까 다 (경기도로) 오셨으면 좋겠다"며 신청을 독려했으며, 실제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 경기도로 이사를 온 사례들도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2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신청자가 더 늘어나 예산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어도 할 테니까 다 (경기도로) 오셨으면 좋겠다"며 신청을 독려했으며, 실제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 경기도로 이사를 온 사례들도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2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신청자가 더 늘어나 예산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어도 할 테니까 다 (경기도로) 오셨으면 좋겠다"며 신청을 독려했으며, 실제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 경기도로 이사를 온 사례들도 있다.

우 도가 직접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이전,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추진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금 지원과 함께 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자 치유와 명예 회복 지원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월 선감학원 피해자지원센터를 수원 팔달구 경기도청 구청사 구관 3층으로 이전했다.

2020년 4월 안산 선감동 경기창작센터 내에 피해자신고센터를 설치했지만, 시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 이용 편의를 늘리고자 이전을 단행한 것이다.

현재 선감학원 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사례 접수와 피해자 정서안정 지원을 위한 개인·심층상담, 트라우마 해소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개인·심층 상담으로 160명, 트라우마 치유에 102명의 피해자를 각각 지원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선감학원 옛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해 선감학원 유적지 보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용역을 통해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460-1 일원 선감학원 옛터 및 건물 11개 동에 대해 현장 조사 및 보존·활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해당 부지를 희생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선감학원 옛터 보존과 관련한 역사·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분석해 근대문화유산 등록도 병행할 방침이다.

마순홍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피해자분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잊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생활비 지원은 물론 선감학원 피해자들을 기리는 추모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삼/기자

#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경기도 장애인 학대 현황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참가

### "경기도 장애인 학대 현황 파악 및 지원체계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14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 '2023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 포럼'에 좌장으로 참가했다.

이번 2023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 포럼은 제3차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경기도 장애인 학대의 현황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로 준비됐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토론회에서 "경기도 장애인 학대의 현황 및 지원체계에 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 현장과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학계 및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실행 가능 방안 모색을 위해서 경기도의회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현희 관장은 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의 구축 과정, 경기도 장애인 학대 신고 현황과 장애인에게 일이 생기면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는 권익옹호 기관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했다.

또한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김상우 팀장은 지역장애인권센터로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며, "제한된 인력, 과도한 업무량, 경력 인정 어려

움이 현장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건희 사무국장은 학대 및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통합지원체계 확대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지원체계 시스템화를 위한 거점기관의 역할 확대,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리 210호 대회의실에서 유튜브 실시간 중계와 100여명의 현장 참석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경기 남부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 주최했고,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후원했다.

김병삼/기자

#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 경기도내 5,900여 개에 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지원 방안 본격 검토

도내 5,900여 개에 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 및 논의될 전망이다.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가 15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예산지원 축소 기조에 맞추어 경기도 사회적경제 조직이 당면한 어려움을 살펴보고, 과도한 위축을 막기 위해 시작했다. 12월에 시작한 본 연구는 내년 3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이용욱 경제노동위원회 회원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인 고은정 의원과 조성환, 안광률, 전자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서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현진 교수를 비롯한 공동연구진과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사회적경제원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용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본 연구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서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현진 교수는 "본 연구를 통해 정부 사회적기업 기



본계획의 지원 축소 기조에 맞추어 경기도 사회적경제 조직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사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과 토론에서 조성환 의원은 "소규모 사회적경제 조직의 행정 지원과 공모사업 신청 등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석준훈 국장은 "용역 기간이 짧은 만큼 사회적경제원의 자료를 활용하고, 다양한 범위 연구보다는 한 방향을 집중하여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 회장인 이용욱 의원은 "수요자의 삶의 질을 고려한다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의 효율성, 경제성 측면과 더불어 복지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며, 연구진에 "경기도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정부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예산 지원 축소 기조에 맞추어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 조직이 당면한 어려움을 살펴보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과도한 위축을 막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장인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을 중심으로 안전행정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12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김병삼/기자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낳는 경주

##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된 도시 경주

### 미래원전, 신해양 르네상스 도약!

**2025년 APEC 정상회의**

지역균형발전  
APEC 소규모 성장기치 실현  
최적도시 경주

생산 유발 **2조 원**  
부가가치 유발 **5536억 원**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단 2030년 완공**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등  
풍부한 원전 인프라와 함께  
글로벌 원자력 산업거점 도약

경제효과 **7조8082억 원**  
고용효과 **2만8178명**

**동남권 해양레저 관광 거점사업**

해양레저 지원센터·레저체험센터  
용오름길·고라성물장·나정 수상 레저 체험장  
문무대왕 해양조각공원·만파식적 공원

감포 나정고운모래 해변 **7만7820㎡**  
총사업비 **490억 원**  
신라오션리조트 조성

Golden City 경주시  
Gyeongju



### 안양시, 사회복지요원 '미래설계 교육' 실시

#### 4차산업혁명 시대, 나의 꿈과 직업 선택하기' 주제...요원 400여명 대상

안양시는 15일 오후 4시 시청 강당에서 사회복지요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미래 진로연구소의 추천 강사를 초청해 미래설계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진로 및 진학 분야의 전문가인 추강사는 이날 '4차산업혁명 시대, 나의 꿈과 직업 선택하기'를 주제로 다양한 사례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현장감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요원이 앞으로 어떻게 직업을 선택하고, 미래를 설계할 것인지 등 큰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강에 참석한 한 사회복지요원은 "꿈을 인생에 있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사람으로 비유하신 것이 인상 깊었다"며 "꿈에 대해 가져야 할 생각과 자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심폐소생술, 취업역량 강화 등 사회복지요원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교육을 총 5회 실시했다.

또 이날 교육에 앞서 올해 4분기 모범 사회복지요원 15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순흥민 선수를 비롯해 각종 스포츠, 게임 산업에서 청년들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요원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전시켜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수변구역 관련 중첩 규제 해제를 위한 시와 주민의 노력 매도한 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은 사과하라"

### 장 시의원의 "시장의 수변구역 관련 규제 해제 추진은 난개발 부추기는 것"이란 주장에 이상일 시장 조목조목 반박

용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이 지난 15일 "포곡을 일원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로 인해 경안천이 오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중첩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식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이 시장은 18일 "중첩 규제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잘못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려는 시와 시장, 그리고 주민의 노력을 매도하는 수준 이하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장정순 시의원은 15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일 시장이 수변구역·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포곡·모현읍에 대한 중첩 규제를 풀기 위해 환경부에 타당한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며 중첩규제 해제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해 "이 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은 규제와 관련한 해당 법의 입법 취지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포곡·모현읍 주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의 중첩 규제 해제 추진은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이며, 누가 주민을 위해 일하는지 현명한 시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장 시의원이 시장의 노력을 난개발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중첩 규제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주민들을 난개발이나 하려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과 같다"면서 "사리에 맞는 주장을 하고 주민들과 그런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시장에 난개발 운운하며 그릇된 꿈수 프



레이를 씌우려 한 장 시의원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게 옳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것은 장 시의원의 주장처럼 군부대 사병들 숙소 증·개축과 민간에 비해 부족한 하수처리시설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시 상·하류 지역 간 협력에 입각해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명시했고, 법령 본문을 통해 수변구역 지정 시 제외해야 할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 기존 취약 지구를 열거해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제외 지역을 명시한 것은 이중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헌법에 위배될 만큼 과도하게 제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상일 시장이 "장 시의원 발언은 해당 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고집은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장정순 시의원이 중첩 규제 해제로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 오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대해서도 "물정을 모르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팔당호 및 경안천은 수변 구역 뿐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지역인 만큼 오수·하수 방류수질규제, 오염총량규제, 특별대책지역 규제,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규제 등 복합적인 보호조치를 받고 있으므로 수변구역 관련 중첩규제 해제로 난개발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속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범상/기자

### 안산시, 중국 지린성 창춘시 국제빙설산업박람회 참가

안산시는 지난 15일 중국 지린성 창춘시 초청으로 시 대표단을 꾸려 창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7회 국제빙설산업 박람회'에 참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초청은 앞서 지난 4일 안산시를 방문한 창춘시 대표단의 단화옥 외 사관공실 주임의 요청으로, 중국 동북 3성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이자 지린성의 중심도시인 창춘시와의 교류 강화 및 빙설산업분야 벤치마킹을 위해 마련됐다.

국제빙설산업박람회는 '눈'을 주제로 한 중국 유일의 박람회로 총 10만㎡ 규모에 실내 전시공간은 6만㎡로 7개의 대형전시관에 ▲빙설축제 ▲빙설 포토존 ▲빙설문화상품 ▲빙설한식푸드 ▲빙설차량운전 등을 주제로 3만448개의 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4만㎡의 실외전시장에는 3개 전시 구역으로 ▲겨울스포츠대회(1만㎡) ▲빙설오락(2만㎡) ▲빙설스포츠대회(1만㎡)를 주제로 다양한 눈 관련 산업과 체험시설이 마련됐다.

윤종오 자치행정과장은 창춘시 관계자들과 면담자리에서 "양 도시가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 교류하면서 관계를 공고히 해왔다"며 "앞으로도 가능성이 넘치는 도시 창춘시와 안산시가 다방면으로 상호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 아동의 목소리, 내일이 되는 화성 ... 제7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발대식 개최

화성시가 16일 제7대 어린이·청소년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시의원, 제6·7대 아동·청소년의원 및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제6대 의회 활동보고와 환경·문화·교육·안전 4개 상임위원회 논의된 정책제안 8건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으며, 1년간의 임기를 마친 제6대 의원 중 활동 우수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진 7대 의원 위촉식에서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제7대 어린이·청소년의원 9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했으며, 학부모들이 함께 신규 의원들에게 의원배지를 달아주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제7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의원 50명과 청소년의원 44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3년 12월부터 2024

년 11월까지 1년으로, 정책토론회, 견학, 인식개선을 위한 아동권리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00만 대도시의 화성시를 위해 화성시 아동을 대표하는 아동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이 행복한 화성시를 위해 제7대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 고양특례시 백석2동, 제2회 주민총회 개최

### 주민 100여명 참석...내년도 주민자치사업 선정

고양특례시 백석2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4일 주민자치회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제2회 백석2동 주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후 2시에 진행된 총회는 100여명의 주민과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백석2동 행정복지센터 문화교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주민총회는 2023년도 주민자치회 활동 사항 보고에 이어 내년도 자치사업 의제 발표 및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백석2동 주민자치회는 이날 열린 주민총회를 위해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백석

역 등에서 찾아가는 현장투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주민총회 당일 투표 결과를 합산해 주민자치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2024년도 주민의제 안건으로 ▲소식지 백석이 열두 달 사업 ▲효 사랑 말미 한마당 사업 ▲재질재질 안전하기 사업 등 7개 안건이 모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중찬 백석2동장은 "남신현 회장을 포함한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및 능동단체 관계자와 주민들의 노력으로 백석2동 제2회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

각하며, 이번 주민총회를 계기로 더 많은 주민이 주민자치에 대해 알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남신현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총회는 백석2동 주민 누구나 마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이다"며 "이번 총회가 마을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신 백석2동 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 "이주단지·광역교통·고도제한 해결 힘쓰겠다"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환영... 중앙정부에 5가지 개선 요청

신상진 성남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18일 "노후화된 분당 신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투입해 도시 재창조의 국가적·국제적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분당과 같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성남시장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이루어 낼 수 없어 인접한 기초·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부·국방부·환경부·교육부 등 범정부적인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하수처리시설, 광역교통망 확충, 학교 재배치, 고도제한 완화, 이주단지 공급과 같은 사무는 국가, 즉 중앙정부가 나서 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시장의 권한만으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량의



이주단지 공급에 한계가 있어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성남시는 현재 광주·용인시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교통으로 인한 극심한 차량정체를 겪고 있어 분당 신도시 재정비로 거주민구가 증가하면 차량정체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국가 단위의 광역교통망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분당 신도시는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인해 용적률을 완화해도 다 활용할 수 없어 국가 안보와 함께 지역 주민이 수급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환경부에,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 재배치를 위해 교육부에 적극적인 협조와 요청을 구했다.

김범상/기자



# 주낙영 경주시장,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등으로 5천만 관광객 시대 포문 열어

### 지방화시대 지역 균형발전 첫걸음은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결정 황리단길, 대릉원, 중심상가 연계 구도심 관광·상권 활성화 파크골프, 스포츠센터 등 권역별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경주 관광 인기가 올해 코로나 거리 두기 해제 이후 경기둔화와 물가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 관광 일변지 명성을 되찾기에 충분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올해 경주를 찾은 관광객 수는 지난해 3793만명 보다 6.6% 증가한 4043만명으로 제2의 관광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올해 최고 이벤트는 단연 대릉원 입장료 전면 폐지와 천마총 발굴 50년을 기념해 열린 '대릉원 미디어아트'다.

여기에 대릉원(11월말 기준 145만명)과 황리단길(11월말 기준 1247만명) 등에 집중된 관광객들을 중심상가로 유인하기 위해 펼쳐진 불금예찬과 중심상권 동행 행사를 비롯한 경주문화관 1918 활성화는 경주 관광 외연을 시내 전역으로 확장시켰다.

시는 내년도 갑진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통해 관광객 5천만 시대를 활짝 열어 국제 관광도시로 우뚝 서는 동시에 세계적인 MICE 산업도시로 위상을 드높일 계획으로 연말을 맞이하여 특별 기획 연재 시리즈로 제1탄 문화관광분야를 소개한다.

올 9월부터 시작한 100만인 경주유치 서명운동이 불과 85일 만에 146만 명의 지지를 이끌어 내면서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대한 시·도민들의 뜨거운 의지와 열망을 보여줬다.

서명지는 이달 중 공모 신청에 앞서 외교부 준비기획단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APEC 경주 당위성과 유치분위기 조성 등에 전념했다면, 앞으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APEC 유치 추진단'이 컨트롤타워가 돼 공모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대내·외 홍보, 범시

민 유치활동 지원 등을 펼쳐 나간다. 추진단을 중심으로 타 도시와 차별화된 유치제안, 현장실사, 프리젠테이션 등으로 외교부 공모절차에 철저히 준비하고 대정부와 정계는 물론 공중파, SNS 등을 활용해 막바지 유치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경주시 연말 특별 기획 시리즈 : 제1탄 문화관광분야>**  
▲ 지방화시대 첫 걸음, APEC 정상회의 경주 선정에 행정력 집중, ▲ 지방화시대 첫 걸음, APEC 정상회의 경주 선정에 행정력 집중, ▲ 도심 관광·상권 활성화 → 지역관광 외연을 시내 전역으로 확장, ▲ 신라역사 문화의 맥을 잇는 새로운 관광명소 제공, ▲ 관광산업 혁신으로 관광객 5천만 시대 포문 열어, ▲ 스마트 에어돔 인기 결정, 권역별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에도 속도 등으로 마련됐다.

▲ 먼저 도심 관광·상권 활성화 → 지역관광 외연을 시내 전역으로 확장  
경주에서 국내 처음으로 대릉원 고분을 배경으로 펼쳐진 미디어아트 야간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떠올랐다.

대릉원 무료 개방과 천마총 발굴 50주년을 기념해 펼쳐진 '2023 경주 대릉원 미디어아트'는 5.4.~6.4. 간 대릉원을 찾은 관광객 수는 31만4163명으로 지난해 1년간 전체 대릉원 방문객 132만 9114명과 비교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옛 경주역은 '경주 문화관 1918'로 개관 후 MZ세대들이 선호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신해 활기를 띠었다. 올해는 △1918 콘서트(5회, 1만 2300여명) △아트&마켓1918(6회, 2000여명) △유명 미술가 전시전(5회, 2만8946명) △무료대관(269회,

2만9628명) △문화창작소 프로그램(60회, 93명) 등의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중심상권 금리단길에서 5.26.~11.3. 간 열린 불금예찬 야시장은 21회에 걸쳐 4만3000여 명이 방문해 새로운 관광코스로 각광받았다. 특히 봉황대 뮤직스퀘어, 거리예술워크 등과 연계해 매출액 1억 원을 훌쩍 넘겼다.

▲ 다음으로 신라역사 문화의 맥을 잇는 새로운 관광명소 제공

신라 금관이 출토된 '금관총'과 신라 고분의 대한 이해도를 높일 '신라고분 정보센터'를 비롯한 신라왕궁 출토유물 전시관인 '신라왕성연구센터(송문대)'가 올 6~7월 개관돼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과 함께 디지털 복원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신라인의 생활상이나 신라왕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천년 신라왕경 디지털(메타버스) 복원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7년까지 1365억원 예산을 들여 타임머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라왕경(王京) 핵심 유적의 디지털 복원에 병행한다. 복원 결과물을 일반인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현실 공간속 디지털 체험관도 조성한다.

경주인속공예촌과 맞닿은 곳에는 신라 공예인들의 숨결을 느끼고 신진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위한 공간인 '신라 금속 공예관'은 내년 6월 개관된다.

감포에는 문무대왕 해양 정신과 신라 해양 역사를 교육·전시하는 공간인 '문무대왕 해양역사관(2025년)'이, 문무대왕연에는 해양문화체험 복합센터인 '선부역사기념공원(2027년)'이 각각 개관돼 해양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열 예정이다.

▲ 그리고, 관광산업 혁신으로 관광객 5천만 시대 포문 열어

경주시가 역사문화관광 특례시 지정 추진과 경주로ON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대한민국 역사문화관광 중심지로 발돋움 한다.

올 9월부터 교통·숙박 예약에서 맛집 검색까지 모바일 관광앱인 '경주로ON' 하나로 경주 여행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향후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대릉원, 신경주역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여행자 라운지에는 '경주로ON'과 연동되는 디지털사이니지, 집보관 서비스, 포토부스, 북카페 등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여행자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

경주보문단지 내 동궁원, 버드파크

와 함께 또 다른 힐링 명소로 거듭날 경주 식물원(라원)도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궁원의 부족한 콘텐츠인 가상현실(VR), 증가현실(AR) 등의 체험시설 도입과 야외 정원을 시설을 대폭 확대했다.

여기에 도서관과 지식정보센터, 커뮤니티 공간을 접목한 복합문화도서관도 2026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도서관, 생활문화시설, 경주의 자연을 융합한 이른바 '카페형 도서관'으로 미래 지향적 공간을 만든다는 게 경주시의 기본 구상이다.

▲ 또한, 스마트 에어돔 인기 결정, 권역별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에도 속도  
사계절 전천후 축구 훈련장 시설인 '스마트 에어돔'이 올 4월 16일 정식 개장 후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여름철 24℃, 겨울철 18℃로 1년 365일 쾌적한 운동 환경이 유지되고 있어 각종 축구대회, 프리팀 훈련, 동호회 시합, 행사장소 대관 등으로 올 한해(12월 8일 기준) 총 이용객 수는 1만7000여 명에 이른다.

스포츠 복지를 통한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권역별 파크골프장은 물론 체육센터 및 체육공원 조성사업도



순항 중이다.

시는 내년 연말까지 39억 원 예산을 들여 △시내권(경주파크골프 제2구장) 18홀 △북경주(안강) 9홀 △남경주(외동) 9홀 등 총 36홀을 추가 조성한다.

기준에 조성 완료된 △시내권 36홀 △서경주(건천) 9홀 △동경주(양남) 18홀을 더하면 5개 권역에 파크골프장이 총 99홀이 운영되는 셈이다.

올 7월에는 건천에 다목적 체육공원이 준공됐다. 향후 충효 국민체육센터(2026년), 현국 체육공원(2025년), 남경주 국민체육센터(2026년), 반다비 국민체육센터(2027년), 베이스볼파크 3구장(2025년) 완공으로 시민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중단 없는 지역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올 한해 실 없이 달려온 결과 올해 경주로ON 출시, 스마트 에어돔 개관, 도심 관광·상권 활성화 등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내년도 정률의 해 갑진년에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반드시 유치하고 역사문화관광 특례시 지정도 조속히 완료해 미래 경주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태용/기자



# 전남도, 친환경농업직불금 190억 연말까지 지급

국비 114억에 자체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76억 추가 확정



전라남도는 20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114억 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76억 원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직불금 총 19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저탄소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1999년부터 시행됐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하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적격을 받은 1만 4천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다. 지급 면적은 약 1만 9천ha로 국비 114억 원을 지급한다. 전남도가 지급할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전국 총 210억 원의 54%에 해당되며 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78만 원이다. 지급 한도는 농가당 0.1ha부터 5.0ha까지며, 인증단계별 ha당 지급 단가는 논은 3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과수는 7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65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국비사업으로 유기농은 5년차까지, 무농약은 3년차까지 100% 지원하고, 유기농은 6년차부터 50%, 무농약은 4년차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2015년부터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지원 자체사업을 추진해 유기농은 6년차부터 50%를 더해 100%, 무농약은 4년차부터 50%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의 자체 추가 지급 대상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수령 후 유기·무농약 지속 인증농지 지급면적은 약 1만 4천ha다. 1만 2천여 농가에게 76억 원을 지급한다. 무농약 벼의 경우 4년차 1회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연차 제한 없이 유기 전환필지에 해당하면 지원한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상기후, 자재가격 인상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성실히 실천하는 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면적 확대 등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 순천시,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 역량 강화 교육' 추진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는 하나!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순천시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먹거리 보장 위원회 등 관계자 22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지역 먹거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완주, 군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민 가공센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현황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먹거리 거버넌스 역량 강화 교육에 나섰다. '지역 먹거리 계획(Food Plan)'은 로컬푸드(Local Food)를 활용해 생산-가공-유통-소비-복지-환경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 경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순천시 확대 ▲건강 먹거리 보장 ▲민관 협치 4개 분야, 60여 개 사업을 과제로 지역 먹거리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더하여, 먹거리 관련 위원회 및 부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계획을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 먹거리 계획 이해 교육, 학교급식 관계자 선진지 현장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시는 올해 ▲생산 시스템 구축 ▲

이승준/기자



## 완도군, 농촌진흥청 주관 '수출 농업 경진대회'서 우수상 수상

히늘소법인 김세운 대표 최고 품질 쌀, 들녘 사업 등 성과 인정

완도군은 지난 12일 농촌진흥청 주관 '수출 농업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전남 대표로 선발된 완도군 소재 히늘소법인 김세운 대표가 최고 품질 쌀 육성 및 수출, 들녘 공동체 사업, 가루 쌀 재배 등 정부 시책 사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출 농업 우수 사례 경진대회'는 매년 농업인, 법인, 농협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우수한 수출 성과를 거둔 시군에 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에서 7개 시군이 본선에 올랐다. 완도군의 김세운 대표는 최고 품질 쌀 계약 재배 및 수출단지 사업에 참여하여 완도 쌀을 해외로 수출하는 생산단지 역할을 담당했고, 가루 쌀 사업, 우리 밀 계약 재배, 들녘 공동체 사업 등 다양한 정부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 및 농업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히늘소법인 김세운 대표는 "이번 수

상을 통해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완도농업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됐다"면서 "완도농업이 타 시군에 뒤지지 않고 더욱 발전하고, 많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완도군은 2018년 군 브랜드 쌀인 '자연고대로미'를 말레이시아(12톤)에 첫 수출을 시작으로, 2019년에 미국(8톤), 2020년에는 러시아(157톤) 등 현재까지 13회, 총 177톤을 수출했다. 특히 러시아 사할린주에는 2022년부터 10년간 1,000톤(약 30억 규모)을 수출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쌀 이외에도 비파 와인과 유자 젤리 스틱, 색깔보리 커피, 전복 비파 음료 등 6종의 농산가공품이 지난 11월 중국 수출길에 올랐고, 향후 5년간 200억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양영율/기자

## 함평군, 월야 농어촌도로 306호선(평촌~지변)확포장공사 준공식 가져

월야면 월악리 일원 교통환경 개선 기대



전남 함평군이 지난 15일 평촌마을과 지변마을을 연결하는 '월야 농어촌도로 306호선'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이개호 국회의원, 윤영량 함평군의회 의장, 군의원, 지역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월악리 마을 주민들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상익 군수와 이개호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월야 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 공사는 총 사업비 16억원(특별교부세 6억원, 군비 1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21년 착공했으며, 월야중학교에서 월악리 지변마을까지 길이 L=1.1km,

폭8m로 확장하는 공사이다. 군은 이번 공사를 통해 월야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장기간 공사로 인한 소음과 통행 불편에도 기다려주신 월야면 주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교통환경 개선과 지역발전 등 함평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나산 농어촌도로 201호선(안영~월평) 등 6개 노선 확포장 공사를 실시해 교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영진/기자

## NH농협 나주시지부, 나주시에 연말연시 성금 5천만원 쾌척

신경훈 지부장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금융기관, 나눔 지속할 것"

NH농협나주시지부가 연말연시를 맞아 저소득층 이웃을 위한 성금 5천만 원을 쾌척했다. 전남남도 나주시는 14일 시청사에서 윤병태 시장, 신경훈 농협나주시지부장, 김동국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사랑 성금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농협나주시지부는 최근 3년간 376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성금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꾸준한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신경훈 지부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더 어렵게 살아가고 연말연시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분들에게 도움을 주

고 싶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나눔을 지속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나주시는 기탁금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다자녀가정 등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윤병태 시장은 "매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로 감동을 주는 농협나주시지부 신경훈 지부장과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소중한 복지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 남원시, 따스한 온기로 마음까지 넉넉하게

중앙교회·기아대책 희망상자 63상자 전달



희망2024 나눔캠페인으로 남원시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교회와 기아대책이 희망상자 63상자를 기탁했다고 밝혀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희망상자는 교회와 기아대책이 함께 지역사회를 섬기는 캠페인으로 교회에서 모은 성금에 기아대책의 후원 물품을 더하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총 4회의 희망상자 캠페인을 진행하여 786개 교회 17만여 명과 함께 57,563개의 희망상자(한가액 91억원 상당)를 전달했으며, 올해에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전달할 예정이다. 희망상자는 생활필수품, 식품 등 기본 물품 16종에 추가 물품까지 더해져 상자당 16만원 상당으로 구성되어 있

다. 중앙교회 정종승 목사는 "기아대책과 함께 희망상자를 관내 위기가구에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주변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되어 추운 겨울 따뜻하고 풍성한 연말이 되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이순택 부시장은 "남원시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중앙교회와 기아대책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부해주신 물품들은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기탁된 물품은 결연아동, 독거노인 등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 성금 기탁을 희망하는 분들은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남출/기자





# 전북도 진안, 무주, 장수, 임실 4개 군 대설주의보 발표... 전북도, 비상 1단계 근무



전북도는 진안, 무주, 장수, 임실 4개 군에 16일 08시 30분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16일 09시 30분을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대응 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해기차에 의해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전북에는 17일 아침(06~09시)까지

눈이 오겠으나, 서해안에서는 16일 오전(12시)까지 비 또는 눈이 오다가 점차 눈으로 바뀌겠으며, 특히, 16일 오후부터 17일 밤사이 도내 매우 많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며, 대설특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전망했다. 이에 도는 실국 및 시군과 함께 긴장감을 갖고 재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며, 특히 내린 눈이 쌓이거나,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빙판길이 많겠으니,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에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

청했다.

또한, 16일 오후부터 17일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릴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시군,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CCTV 등 활용하여 기상, 도로 상황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설시 가용 가능한 장비, 인력을 총 동원하여 도로 제설에 총력 대응할 것이며, 특히, 고갯길, 급커브 등 적설취약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제설장비 전진배치 및 제설제 사전살포를 실시하여 도민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사, 양식시설 등 농축수산 시설에 대해 지붕 눈살기, 지주보강 및 양식생물 월동장 이동 등 대설, 한파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

이며, 강설시 재난 문자, TV 자막, 마을 방송 및 전광판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하기, 내집 앞 눈치우기 등 도민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낙상사고 등 인명피해가 예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 "16일, 17일 사이 도내에 많은 눈이 예상된 만큼 도-시군과 함께 그동안 준비된 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대설 대응태세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히며, "도민들께서는 최신 기상특보를 확인하고 도민 행동요령에 관심을 갖고 폭설시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남출/기자

## 16일부터 17일까지 많은 곳은 20cm 이상 눈 예상

## 강진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 사고 대처방안 안내

강진군은 2023년 상반기에 이어 지난 14일,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17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개인(영상)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제도, 개인정보보호 사고 사례, 개인정보보호 실무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개인 영상정보 보호에 대해 심층적인 내용이 다뤄졌다.

교육을 마친 직원들은 개인정보 및 개인 영상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처 방안을 익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강진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관내 344개소에 1,060대의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며, 관제요원이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통해 각종 범죄 및 재난·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2024년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맞이해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관광지까지 CCTV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추윤호/기자



## 진도군, 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폭력 예방 운동 실시

###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없는 세상, 관심이 희망입니다. 공연 관람

진도군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폭력 예방 운동을 실시했다.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과 진도군 가족센터 직원 등 기관단체 40여 명이 참여해 군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물과 안내판을 들며 길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행사 참여자들은 진도읍 오일시장 장날에 맞춰 인파가 많은 주변 상가를 돌

며 군민들을 대상으로 4대폭력 방지와 피해자 대처법 등을 홍보했다.

진도군 가족행복과 관계자는 "우리의 관심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며 "지속적인 예방 홍보 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4대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성범죄와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 구례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폐회

### 2024년도 예산안 등 의결

구례군의회는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 제30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4건, 2024년도 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은 구례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3,487억 원 중 11개 사업, 24억 8,100만 원을 삭감하고, 4개 사업 4억 8,651만 원을 증액해 의결했으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건, 2천만 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주요 조례로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의결돼 보훈 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했다.

또 공동주택 지원사업 적용 범위를 당초 20세대 이상에서 10세대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내용으로 하는 구례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처리해 공동주택의 주거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옥상 방수를 위한 지붕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구례군 건축 조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당초 30개 이상 점포에서 20개 이상으로 하향해 골목형 상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구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 등도 의결돼 소규모 가설건축물에 대한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골목상가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유시문 의장은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도 군민의 기대에 반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예산편성을 위해 동료 의원들과 많은 고민을 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보다 큰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군의회 회의는 구례군의회 누리집 영상회의록에서 실시간 및 녹화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김성현/기자



## 목포·신안 통합 "이번에는 청년들이 나선다"

###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청년분과위원회 출범

목포시는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안목포 통합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6일 목포 상그리아 비치호텔에서 통합추진위원, 신규 청년위촉 위원, 박홍률 목포시장, 문차복 시의회 의장 및 기획복지위원회 의원, 시 관계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와 청년분과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통합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신안, 목포 양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각종 세미나, 정책사항 정리 및 홍보, 양 지역 주민단체의 교류, 여론조사 등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이번에는 목포지역 20대~40대의 젊은 청년들이 전남 서남권의 미래를 위해 목포와 신안 통합운동에 뛰어들고자 나섰다.

20명의 젊은 청년들이 미래 지역의 주인임을 인식하며, 전남 동부권에 비해 인구, 소득 등 모든 면에서 뒤처지고 있는 전남 서부권의 현실을 직시하고, 양 시·군의 젊은 세대가 힘을 모으

기 위해 통합추진위원회 청년분과위원회에 참여했다.

장광욱 청년위원장은 "목포 신안 통합은 지역규모나 경제를 생각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6번째 시도인 만큼 힘들고 험난한 도전이지만 함께 잘사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청년들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통합추진위원회는 2023년 활동 결과와 2024년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이번 회의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통합과 관련한 지역의 입후보자들에게 목포신안 통합을 선거공약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주축이 된 청년분과위원회가 출범된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민간 주도의 통합을 염원하는 발걸음에 새로 위촉된 청년위원들이 함께 해주실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 보성군, 추운 겨울 따뜻하게 '사랑의 땀감 나누기' 추진

### 취약계층 37가구에 사랑의 화목용 땀감 37톤 무상 공급



보성군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37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화목용 땀감 37톤(t)을 무상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된 땀감은 보성군 공공산림 가꾸기 근로자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투입해 2023년 숲 가꾸기와 임도 개설 등 산림사업으로 발생한 부산물을 산물집하장에 집제한 후 땀감 용도로 만들었다.

땀감 공급은 12개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관용차를 이용해 땀감을 수령한 후 대상지까지 배달했다.

행사를 추진한 보성군 관계자는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땀감을 지원함

으로써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에서는 작년에도 38가구에 땀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산림복지 차원에서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최원영/기자





# 경북도, 농업대전환 핵심 '혁신농업타운 성과보고회' 개최

### 참여농가·자문단·행정 한자리... 3개 시범단지 한해 성과 보고

경북도가 지난 15일 「2023년도 혁신농업타운 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경북 농업대전환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재근 경북대 명예교수 등 자문단과 홍의식 늘봄영농법인 대표 등 마을리더를 비롯하여 도·시군 관계관이 참석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23년 혁신농업타운 시범단지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마을 관계자와 자문단 및 시군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향후 사업추진 논의와 농업대전환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혁신농업타운은 경북도 농업대전환 핵심사업이다. 영농 규모화, 첨단화 및 기술혁신을 통한 소득배가 실현을 위해 올해 구미, 문경, 예천 3개소에서 추진되고 있다.

주요 성과로, '구미지구'는 이모작 체계 전환 및 가공 등 6차 융복합 연계 모델 마련, '문경지구'는 공동영농 이모작 통한 소득배가와 참여농가 주주형 가능성 검증, '예천지구'는 임대형 스마



트팜 공모선정에 따른 첨단형 농업타운 퍼즐완성 등이 주요 실적으로 보고됐다.

경북도는 국내 처음 도입된 사업임을 감안, 대학교, 연구기관, 관련 기업체 및 전문 컨설팅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3월에 구성해 4월부터 시설

장비 도입, 공동영농 작부체계, 법인운영 및 소득배분 등 사업 전반에 대해 마을리더와 참여농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했다.

이날 문경지구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석태문(대구대 외래교수) 교수는 "문경 영농인들의 경우 경지이용률은 올해

13% 증대, 작부체계 전환으로 15억 8천만원의 총소득 증가(3.4배)를 보여 주주배당이 가능한 소득모델이 실증됐다"고 보고하면서, 향후 농작업과 효율적인 경영사항 기록을 위한 「디지털 공동영농 관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손재근 교수는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 격려하면서도 "탑다운(Top-down·하향식)식 농업정책에서 벗어나도록 농가 스스로 인식을 바꾸고, 보다 차별화된 컨설팅이 필요하다"며, 1단계(토지중심)를 넘어 2단계(연계소득)·3단계(디지털)로 발전되도록 폭넓은 시각을 가져주길 주문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업대전환에 동참해 준 참여농가와 사업 완성도를 높이는데 지혜를 모아준 자문위원들께 감사하다"며, "사업이 확대되는 내년에는 보다 내실있는 컨설팅과 사업추진으로 경쟁력을 갖는 공동체와 소득배가 결과물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부산시, 한파 취약계층 거주지 순찰 강화... "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 지원"

### 12.17. 부산시 한파 특보에 따라 한파 취약계층 거주지 대상 순찰·점검 실시



부산시는 지난 주말부터 불어닥친 한파에 대응해 한파 취약계층 거주지 대상으로 순찰·점검을 강화하고 안전 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전국의 한파와 함께 부산도 영하 3.5도로 한파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부산시는 긴급히 거리노숙인에 대해 응급 시설로 입소토록 밀착 상담을 실시했다.

또한, 쪽방주민,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 거주지에 대해 순찰하고 건강 확인 및 화재위험 등 안전사항에 대해 점검했으며, 현재까지 한파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구·군, 경찰, 소방 등으로 구성된 '노숙인 공동대응반'을 지난 11월부터 운영해 동절기 노숙인 관리에 종합적으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노숙인 공동대응반'은 부산시, 구·군, 경찰, 소방, 노숙인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운영된다.

특히, 부산역 등 노숙인 밀집지역에는 '현장대응 전담팀'이 24시간 활동하며, 한파피해 위험 거리 노숙인에 대해 응급 잠자리 등 노숙인 보호시설로 입소토록 밀착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노숙인 보호시설인 부산희

망드린센터는 휴일 없이 매일 2회(중·석식) 제공하고 있다.

쪽방 주민에 대해서는 쪽방상담소 직원이 순회방문을 통해 고령자, 장애인, 질환자 등 집중 보호 대상 발굴을 강화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 취약한 거주자에 대한 순찰, 상담 확대 및 구호물품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한파 등 기상특보 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긴급 재난안전 문자를 제공하고, 응급버튼을 통해 119 신고와 활동지원사들에게 응급상황을 전달되도록 안전시스템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는는 한파로 힘든 취약계층이 이번 겨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경찰, 소방, 민간기관 모두 협력해 한파에 대비해 빈틈없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는 20일 현장을 직접 찾아 취약계층 안전 및 한파 대응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희태/기자

# 대구시, 미래 혁신기술 융합 '메타버스와 ABB 혁신기업 기술교류회' 개최

### 19일 인터블고(만촌)에서 메타버스와 ABB 기술교류회 개최

대구광역시 지역 메타버스·XR 분야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19일 호텔 인터블고(만촌)에서 ICT 분야 기업 임직원 및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3 메타버스와 ABB 혁신기업 기술교류회'를 개최한다.

이번 기술교류회는 대구광역시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메타버스 지원 사업으로 창출된 성과 및 결과물을 공유하고 유관 기업·기관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려는 취지로 개최된다.

대구광역시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세에 맞추어 인력양성, 콘텐츠 제작, 인프라 구축 등 지역 메타버스 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메타버스와 ABB 혁신기업 기술교류회'에서 지원사업으로 창출된 기술 및 성과를 메타버스 관련 기업 및 기관에 소개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성과공유에 앞서 서울과학기술대학원 벤처투자금융 MBA박혜진 교수가 'VC가 바라보는 2024년 메타버스&블록체인 비즈니스 동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

작하며, 이후 지원사업으로 창출된 성과 발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발표 내용에는 △드림아이디어 소프트웨어의 '메타버스용 대화형 AI' △무버스의 '메타버스 기반 3D 가상 fitting 확장 솔루션' △스튜디오의 '메타버스 강의 VR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사례' 등이 있으며, 그간 지원받은 기업 중 혁신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그 외에도 △피케이아트미디어의 '메타페인팅과 AI모델의 발전 방향' △Y디자인랩의 '아나몰픽 실감미디어 콘텐츠 기반의 공간 인식 AR 융합 기술' △디지엔터테인먼트의 '웹3.0클라우드 메타버스 플랫폼 소개 및 시연'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은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번 기술교류회를 통해 지역 우수 메타버스 기업을 발굴하고 신산업과 융합한 기술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역 메타버스 산업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행사일시	행사장소	행사일정	발표
2023.12.19 14:00~18:00	인터블고 호텔 (만촌, 만촌동)	14:00~15:00	VC가 바라보는 2024년 메타버스&블록체인 비즈니스 동향 (서울과학기술대학원 벤처투자금융 MBA 박혜진 교수)
		15:00~15:20	메타버스용 대화형 AI (주:드림아이디어소프트)
		15:20~15:40	메타버스 강의 VR 플랫폼을 위한 3D Virtual fitting 확장 솔루션 (주:스튜디오)
		15:40~16:00	메타버스 강의 VR 플랫폼을 구축 및 활용 사례 (주:스튜디오)
		16:00~16:20	Break Time
		16:20~16:40	메타페인팅과 AI모델의 발전 방향 (주:피케이아트미디어)
		16:40~17:00	아나몰픽 실감미디어 콘텐츠 기반의 공간 인식 AR 융합 기술 (주:Y디자인랩)
		17:00~17:20	웹3.0클라우드 메타버스 플랫폼 소개 및 시연 (주:디지엔터테인먼트)
		17:20~	메타버스&ABB 신기술 융합 교류회

# 청송군,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

청송군은 12월 12일부터 3일간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군에서는 3개반 5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학교주변 분식점, 마트, 편의점 등 1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가졌으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조리·보관 형태 점검과 돈·술병 형태의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식중독 예방 및 위생적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했다.

점검 결과 특별한 위반 사항은 없었지만, 어린이 소비행위가 성인과 다른 점을 고려하여 영업주와 판매자들에게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과 관리에 대해 한 번 더 알리고 당부하는 계기가 됐다.

윤경희 청송수는 "성장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어린이 식품안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영양군 '크리스마스 로맨틱 멜로디' 개최

영양군에서는 '2023년 크리스마스 로맨틱 멜로디'를 12월 18일 월요일 19시부터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연말을 맞아 심신이 지친 군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선착순 300명만 입장할 수 있으며 무료 공연으로 진행됐다.

'크리스마스 로맨틱 멜로디'라는 이름으로 개최되는 이번 콘서트는 발라드, Jazz, 크리스마스 캐럴 등의 차가운 겨울을 따뜻하게 녹여줄 로맨틱한 공연으로 구성됐다.

출연 가수로는 특유의 음악성이 돋보이는 민고 듣는 싱어송라이터 권진아를 비롯해 감성 싱어송라이터 최유리, 포크송의 매력을 선보일 여행스케이치 등이 출연하여 다채로운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크리스마스 감성을 더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군민들께서 이번 공연을 통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따뜻하게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올 한 해 영양군이 준비한 문화예술행사와 공연을 사랑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4년에도 다채로운 예술 공연을 지속해서 개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문화체육센터  
2023.12.18  
p.m 7:00 ~ 9:00

권진아 / 최유리 / 여행스케이치 / 어니스트뮤직 / 소울크라이카진

\*본 공연은 무료공연이며 선착순 입장입니다



# 경북도, 6년 연속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RnD 선정

## AI 기반 해상위기상황 개인·선박 자동반응형 조난신고장치 개발

경북도가 '24년도 행정안전부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RnD 공모에 선정되어 최대 국비 15억원을 지원 받는다.

2024년도 신규과제 공모에는 전국 광역시도가 제출한 23개 과제가 경합했으며, 이 가운데 6개 과제가 최종 선발됐다.

경북도는 지난 '19년부터 6년 연속 매년 1개 과제가 선정되어 전국 유일의 사례를 남겼다. '19 ~ '24년도 사업까지 확보한 국비만 83억원이다.

선정된 과제는 'AI 기반 해상위기상황 개인·선박 자동반응형 조난신고장치 개발'로 3년간 국비 최대 15억, 도비 3억 7천5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내용은 개인(해양레저인 또는 선원)에게 구명조끼처럼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장치를 개발해 바다에 빠졌을 때 염농도·위치·해수속도 등을 통해 AI가 조난상황을 자동 감지하고, 즉시 공기가 주입되어 물에 뜨도록 설계했다.

이 장치를 통해 위성으로 조난구조 신호를 송출하게 되어 생존에도 도움을 준다.

선박에는 장치를 부착해 전복사고 등 위기 상황에서 부표처럼 해수면에 자동 전개되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평가에 앞서 어떤 인터뷰 및 회의를 통해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이영석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안전경북을 실현 하라는 민선 8기 이철우 도지사의 강력한 주문에 따라 그간 각종 공모사업에 매진한 결과, 6년 연속 선정이라는 좋은 결과가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는 물론 안전행정실로 조직을 개편('24. 1.) 하는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성 한국어업인 중앙연합회 동해본부 총괄회장은 "공모 선정을 축하드리고,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해 주신 재난안전실(안전정책과)과 환동해지역본부(해양수산과)에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장치가 잘 개발돼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어선원과 해양레저인의 활동에 불편함을 주지 않는 다양한 인디페이스(5종 이상) 지원
- 부표형 구조와 조난신고위성 연계구조를 통해 300km 이상 먼 바다에서도 위치 기반의 정밀한 조난신호를 송출



# 영덕 강구초, 신협이 스포츠 꿈나무를 어부바합니다!

## 강구초, 축구부 후원

강구초등학교(교장 김정섭) 축구부는 12월 15일 본교 다목적홀에서 신협중앙회의 강구초등학교 축구부 발전기금 후원 행사를 가졌다.

이번 후원은 신협중앙회의 어부바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강구초는 강구신협에의 추천으로 4년 연속 선정돼 오백만원(누적 삼천오백만원)의 후원금을 전달받았다.

이날 후원 행사에는 신협을 대표하여 강구신협 임문혁 이사장, 김용태 전무가 참여했으며, 학교 측에서는 축구부 학생 전원과 감독, 코치,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후원행사는 국민의례, 학교장 인사, 강구 신협이사장 인사, 축구부 활동 모습 영상 시청,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했다. 후원금으로 축구부 유니폼과 각종 축구용품 구입 및 훈련경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열심히 훈련하는 축구부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우수 선수 발굴에도 투자하기로 했다.

김정섭 교장은 어려운 시기에 본교 축구부를 위해 후원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후원금으로 축구부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도움 주신 신협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축구부 선수들에게도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고 큰 꿈을 가슴에 품고 훌륭한 축구 선수로 자라주길 당부했다.

장문화/기자



# 안동시, 호흡기감염병 증가에 따른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안동시보건소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인플루엔자(독감)에 대한 유행상황에 대비하여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5세 이상 학동기에서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국내에서는 3~4년 주기로 주로 늦가을~초봄에 유행하고, 감염 초기 발열, 두통, 인후통이 나타나며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중증의 폐렴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한편,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으로 불리며 발열, 기침, 두통,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난다.

경상북도 표본감시 48주차 주간소식지('23. 12. 2. 기준)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경상북도 '22년 84명 → '23년 96명으로 작년 대비 114% 증가했으며, 인플루엔자(독감)

은 경상북도 1000명당 '22년 15.0명 → '23년 48.6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기침할 때는 휴지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하루에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창문열기 생활화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등 5대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경숙 감염병대응과장은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 손씻기, 기침예절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비말·공기 중으로 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의심증상 발생 시 조기에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행복과 낭만, 감동을 나누는 '영주 철길 야시장 크리스마스 마켓'

## 22~23일 구성공원 일원서 개최...다양한 문화행사가 가득

경북 영주시는 오는 22~23일 양일간 행복과 낭만, 감동을 나누는 '영주 철길 야시장 크리스마스 마켓'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영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소평관광 편의서비스 개선'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하는 '2023년 소평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경상북도가 후원하고 (재)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다.

'야시장 크리스마스 마켓'은 구성공원 일원의 철길을 따라 열리며, 양일간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크리스마스 분위기 가 느껴지는 포토존 △행복 산타를 이겨라 △무대 레크리에이션 △지역 먹거리 장터 △푸드트럭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가 준비된다.

행사장에는 3명의 산타가 미니게임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100% 당첨 이벤트를 통해 선물을 증정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영주사랑 노래·댄스 대회, 노래 듣고 빨리 맞추기 게임, 크리스마스 최고의 커플, 세대공감 퀴즈 이벤트, 영주 가족 오락관 등 다양한 게임이 진행될 예정이다.

22일에는 아카펠라 인디밴드 '두왁 사운즈가'가 다양한 장르의 아카펠라

스타일의 커버곡을 선보일 예정이며, 23일에는 2인조 밴드 '디에이드' 축하 공연이 진행되며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낭만적인 음악을 선사하는 '철길 버스킹'도 함께 준비돼 있다.

영주문화관광재단 김덕우 대표이사는 "사랑하는 이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위해 영주에만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다. 단순한 행사를 넘어 크리스마스가 상징하는 행복, 낭만, 풍요의 가치를 실현하는 페스티벌이 됐으면 한다"며, "유지력을 적극 활용한 소평관광상품 및 다양한 행사를 개발해 침체된 원도심을 활기찬 도심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영주시는 소평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이번 야시장을 포함해 '영주역 트래블라운지', '영주행 열차 영차영차', '어서와 영주', '내게와 영주' 5개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천혜의 자연과 보석 같은 관광지 그리고 다채로운 지역 특산물을 포함한 영주만의 관광상품 개발로 소평관광지로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금자/기자



# 주낙영 경주시장, 공무원 내년 총선 중립 엄정 촉구

## 주 시장, 18일 확대간부 열고 특정 후보지지 등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강도 높게 지시

내년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경주지역에서도 벌써부터 선거 분위기가 과열된 조짐을 보이자 주낙영 경주시장은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의무를 강하게 촉구했다.

18일 경주시 확대간부 회의에서 주 시장은 "공무원은 선거에 일체 관여 했어도 안 되며 중립을 지켜야 할 엄중한 의무가 있다"면서,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공적·사적 처신을 확실히 하라"고 지

시했다. 그러면서 "최근 인근 도시는 물론 지역에서도 퇴직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현직 공무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일이 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행태로, 퇴직 공무원들은 후배 공무원들이 선거 중립을 지키면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주 시장은, 선거 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요령도 제시했다. "첫째, 특정 후보 주치의 출판기념회를 비롯한

각종 집회 참석금지", "둘째, 특정후보의 SNS 등에 지속적인 지지표명 행위 근절, "셋째, 특정후보 캠프에 합류한 퇴직공직자와의 모임 자제" 등 엄정한 공직선거법 준수를 재강조 했다.

이와 관련, 경주시는 내년 4월 총선이 끝날 때까지를 '총선 관련 공직자강 확립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위반 등을 강도 높게 감찰해서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윤태용/기자



# 울진군 금강송면, 노인일자리사업 해단식 및 안전교육 실시

울진군 금강송면장은 지난 12월 금강송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을 마무리하는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의 어르신 교통안전교육과 울진군 보건소 공중보건팀의 어르신 구강 관리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박재용 금강송면장은 "어르신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며 "오늘 해단식이 어르신들의 마음에 행복과 건강을 가져다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한 해 동안 사고 없이 금강송면을 아름답고 청결하게 만

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어르신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 경북도, 2023 대한민국 한복문화 포럼 개최

### 15일 한국한복진흥원서 110여 명 한복전문가와 한복인 한자리

경상북도는 지난 15일 대한민국 한복 문화산업의 중추, 한국한복진흥원에서 '2023 대한민국 한복문화 포럼'을 개최했다.

한복은 한글, 한식, 한옥, 한지와 함께 대한민국 5천 년 역사를 이끌어 온 전통문화의 뿌리이자 한류의 정수이며, 대한민국 신한류를 이끌어갈 5한(韓)의 중심에 바로 경상북도가 있다.

경북은 예로부터 명주, 인견, 삼베 등 전통섬유의 주 생산지역이자 아름다운 천연염색으로 유명하며, 전통복식문화산업의 거점기관인 한국한복진흥원이 자리한 대한민국의 한복 중추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포럼은 한복이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복식임을 확고히 하고, 한복으로 지켜나가는 할 정신문화 확산, 현대 패션과 전통복식 사이의 균형 맞춘 한복 입기 문화 조성 그리고 한복산업의 미래를 토론하는 장으로 열렸다.

먼저 ▲이형호 한복진흥원장의 '대한민국 한복 문화의 미래'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권혜진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가 '100년 뒤 한복은 누구의 것일까'로 주제강연을 했다.

▲이경숙 수(繡) 박물관장의 '아름다운 한국적 이미지를 담은 한복자수' ▲김단하 한복 스타트업 단하주단 대표의 '전통vs트렌드:한복에 hip을 더하다' ▲박용후 피와이에이츠 대표의 '동북공정에 대항하기 위한 한복 마케팅의 지향점'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경북도는 대한민국 한복 문화산업 거점기관인 한국한복진흥원 내 경북한복문화창작소를 전문적인 한복인 양성 교육기관 및 창작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육성 중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전통적인 한복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빅데이터·AI 기반 한복 플랫폼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또 4한(韓)과 더불어 다양한 한복 콘텐츠 상품을 개발하고, 글로벌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한복문화의 대중화·세계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이철우 도지사는 '한복은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이란 인식을 뛰어넘어 한복의 일상화와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한복의 고유한 멋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국내외에서 한복을 즐겨 입고 한복 입기 문화를 직접 전파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포럼을 통해 앞으로 한복의 현재와 미래 지향점에 대한 많은 고견을 당부드리며, 한복 문화 확산은 물론 한복 산업의 전문성과 미학이 한 차원 도약할 수 있도록 경북도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 영양군 12월 별빛아카데미 개최

### 방송인 김학래 초청

영양군은 12월 15일 영양문화체육센터에서 방송인 김학래를 초청해 '12월 영양군별빛아카데미'강연을 개최했다.

영양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영양별빛아카데미는 군민들에게 문화적 소양을 쌓고 명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해 강연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강연에서 김학래 씨는 '행복하게 통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인생에서 도전과 실패에서 오는 교훈과 사업 성공 노하우 등을 특유의 진솔하고 재치있는 입담으로 전달해 청중으로부터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 황은 "평소 좋아하던 코미디언 김학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즐거웠었다."라며 "내년 별빛아카데미는 어떤 강연이 있을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오늘 강연으로

행복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내년에도 군민들이 배우고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강연을 자주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함께 육아, 두 배 행복' 대구 100인의 아빠단 내년에 또 만나요!

대구광역시시는 지난 16일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2023년 대구 100인의 아빠단' 활동을 마무리하는 해단식을 가졌다.

대구 100인의 아빠단은 3~7세 ('17~'21년생) 자녀를 둔 아빠들의 육아 모임으로, 남성 육아 참여를 통해 아빠와 아이가 같이 성장하고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실천을 독려하고자 2019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5번째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5기 아빠단은 지난 4월 발대식 후 약 8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제시되는 5개 분야(교육, 건강, 놀이, 관계, 일상 분야) 육아 미션을 수행했으며, '동물 먹이 주기', '쿠키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해단식은 아빠단 20가족, 약 70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적극적인 참여로 모범이

된 최우수 아빠(김리든, 정승강, 조인현)를 포상해 그간의 노고를 서로 격려했으며, '우리가족 구슬땀 명랑운동회', '마술쇼' 축하공연으로 한 해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현장에 참가한 아빠단 김00 씨(남구)는 "그간 직장을 핑계로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는데, 올해는 100인의 아빠단 활동을 하며 아이에 대해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커뮤니티를 통해 다른 육아하는 아빠를 만나 고민을 나눌 수 있어 좋았던 것 같다. 가능하다면 내년에 또 활동하고 싶다"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김신영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아빠 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을 느낀다. 한 해 활발한 활동을 해주신 아빠단 모두에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욱 참신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돌아올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부산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 임명



부산시는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태열 정보통신산업본부장을 12월 18일자로 임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명장은 오늘(18일) 오전 9시 50분 시청 의전실에서 수여할 예정이며, 신임 원장의 임기는 임명일인 12월 18일부터 2년이다.

신임 김태열 원장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글로벌성장본부장과 정보통신산업본부장을 역임하면서 디지털산업 육성분야의 전문가임을 인정받았다.

김태열 원장은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2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입사해 글로벌성장본부장, 정보통신산업본부장을 역임하면

서 지역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 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창업, 인력양성 등 디지털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디지털 분야 전문가다.

신임 원장은 그간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관련 분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 디지털 경제·산업 선도기관, 고객에게 인정받는 전문기관, 나아가 부산을 글로벌 디지털 매력 도시로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김 원장에게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부산이 디지털 선도도시로 비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희태/기자

# 청송군,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청송군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6180대(7억 3931만원)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또는 ATM기,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사이트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청송군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해 1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윤근수/기자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1석 3조

# 고향사랑 기부제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 쌀, 사과, 한우, 버섯, 고춧가루, 참·들기름, 전통장류, 오미자액기스, 육포, 유기, 봉화사랑상품권 등





# 정시 합격의 길을 찾아라, 수원특례시 2024학년도 정시전형 대학입시박람회 성료

추운 날씨에도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발걸음 이어져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는 12월 16일, 수원특례시 2024학년도 정시전형 대학입시박람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는 '1:1 맞춤형 정시전형 진학 컨설팅·정시대비 입시전략 특강'으로 이루어졌다.

1:1 맞춤형 진학컨설팅은 20개 부스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문상담교사가 수험생의 수능 성적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경기도대입전형 연구팀장인 최승후 강사가 '2024 정시모집 맞춤형 지원전략' 특강을 진행, 특강이 끝난 후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정시 지원전략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수원시청소년재단 이병규 이사

장은 "올해 수능이 어려웠던 만큼 입시과정에서 수능의 중요성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정시전형 지원에 혼란을 겪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청소년희망등대 관계자는 "수험생 및 학부모를 위해 대학입시박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매년 변화하는 대입 전형에 맞춘 전형별 입시전략을 발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희망등대는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관내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병상/기자



# 이천시 모가면주민자치회, 포항에서 역량강화 워크숍 가져

이천시 모가면주민자치회가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포항시 일대에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1기 주민자치회를 마무리하고 2024년 제2기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선진 우수사례 사업지역을 견학하면서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가면주민자치회가 방문한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은 주민생활과 가까운 생활권과 가까운 도시숲 및 수변공간에 맨발걷기가 가능한 포항의 산책로 '맨발로 걷기 좋은 길, 맨발로(路) 30선' 등 녹색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다.

'맨발로(路) 30선' 중 송도솔밭 도시숲을 방문한 모가면주민자치회는 도시숲 공간의 산책로를 활용해 맨발 걷기 인프라를 구축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서 우리면 사업추진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맨발학교 포항

지회장을 중심으로 송도솔밭 주변을 직접 맨발로 걸어보며 맨발 걷기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

더불어 철길숲, 스페이스워크, 해안둘레길 등 포항시의 주요 관광지 방문과 체험을 통해 이천시 관광자원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박희석 모가면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사례 현장견학을 통해 우리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병상/기자



# 스포츠 복지도시로 힘차게 도약하는 의정부시

의정부시는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자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스포츠 복지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모습을 살펴본다.

시민 중심의 체육 소관 위원회 구성 시는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 중심의 체육 관련 위원회를 구성했다.

올해 2월 출범한 각 동별 '동 체육진흥회'는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으로 시가 주최하는 걷기대회, 단오제 씨름대회 등의 체육행사를 수행했다. 또한 각 동의 체육진흥을 위해 시민 생활체육 운동 및 캠페인 등을 전개했다.

올해 3월 구성된 '의정부시 체육진흥협의회'는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의장인 시장을 포함해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역시 2년으로 '2023 의정부시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했으며,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확보와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공존하는 시민 중심의 레저스포츠타운 조성

시는 녹양동 종합운동장 일대를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고, 엘리트 및 생활체육이 함께하는 체육복지 공간으

로 재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우선 시민레저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시민, 체육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기획단'을 조직했다. 시민기획단은 레포츠타운 마스터플랜 기획,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한 아이디어 제안, 시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각종 홍보 등을 진행했다. 다양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낮에만 이용할 수 있었던 의정부종합운동장 내 주경기장 육상 트랙을 지난 9월부터 야간에도 오후 9시까지 연장 개방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종합운동장 트랙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말까지 시범운영하고 이용률 등을 고려해 내년 상시 개방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민들이 어디서든 종합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 주변에 설치돼 통행을 가로막던 울타리를 철거하고, 일부 구간에 산책로를 조성해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야간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육상트랙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경기장 내 노후화된 육상트랙을 보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을 대표로 하는 시민기획단과 함께 종합운동장을 시민특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주요 마스터플랜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 시민수요를 통한 야외운동기구 등의 체육시설 확충 ▲ 종합운동장 내 둘레길 등 산책로 구축 ▲ 진입광장의 빈공간

과 불법경작으로 훼손된 산림을 활용한 휴게공간 조성 등이다.

1단계로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하반기까지 진입광장 및 잔디마당의 휴게공간 개선, 야외 운동기구 설치, 노후화된 스포츠런닝길 개선을 추진한다. 2단계는 2026년까지 둘레길 및 황토길 등산책로를 구축하고, 기존 X-Game시설을 연계한 인라인 트랙 설치 등을 통해 익스트림 스포츠존을 조성한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이 주도하는 다채로운 체육 대회 및 행사 개최

시민과 함께하는 대표적인 체육행사로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4월 1일 개최한 '2023 한마음 걷기대회'를 꼽을 수 있다. 호원권역 중랑천 동막고 광장에 시민 6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중랑천변을 따라 늘어난 벚꽃이 장관을 이루며 시민 모두가 하나되는 축제로 진행됐다.

또한, 6월 3일에 개최한 '제27회 단오제 의정부시 씨름왕 선발대회'에는 14개 동, 7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보였다. 각 동별로 열정적인 응원전도 펼쳐져 연령층을 불문한 시민 1천여 명이 어우러지는 세대 통합의 축제가 됐다.

6월 10일에는 '우리들만의 축제! 제1회 U-레페(제1회 의정부 시민레포츠 페스티벌)'을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했다. 관 주도의 행사에서 벗어난 시민주도형 레포츠 축제로서 시민기획단이 모은 부분을 기획하고 직접 추진했다. 마

켓츠, 홍보존, 트랙체험, 이벤트존 등 다양한 참여 행사와 볼거리를 제공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참여 시민 수만 3천124명으로 열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의정부시 스포츠 위상을 알리는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시는 현재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가진 빙상(스피드스케이팅·쇼트트랙)을 비롯해 사이클, 테니스 등 4개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다. 제갈성렬 감독, 이강석 코치가 이끄는 스피드스케이팅팀은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에도 김민선, 정재원, 김경래 3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했다.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금메달 35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16개를 수확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빙상팀으로 입지를 확고히 했다. 특히, 유망주 김민선은 2022/23 시즌 '사대륙 스피드 선수권 대회', '레이크플래시드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6차 대회'에서 금메달 10개, 은메달 1개를 목에 걸며 이상화의 뒤를 잇는 신(新)빙속여제 등극을 알렸다.

1988년 창단한 전통의 강호 사이클팀은 '제25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사이클대회'와 '2023 KBS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 종합우승을 포함해 올해 금메달 42개, 은메달 17개, 동메달 16개를 획득하며 이번 시즌 사이클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9월에 열린 항저우아시아안게임에서는 국가대표로 출전한 장훈이 단체추발 종목

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며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국내 1~2위를 다투는 테니스팀은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 남자복식 우승을 비롯해 'ATP 벨갈루루 챌린저', 'ITF 대구국제남자 테니스투어 대회' 남자복식에서 정윤성, 정영석이 정상에 오르는 등 올해 금메달 9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15개를 따내며 의정부 테니스의 저력을 보여줬다.

'송산동 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한 첫 삽, 민락저류지 풋살장 설치

시는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송산동 스포츠파크 신규 조성'의 일환으로 민락2지구 내 민락저류지를 스몰(small) 스포츠파크로 조성 중이다. 우선 저류지 내 노후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다목적구장을 철거했으며, 정구규격 규모의 풋살장 2면을 내년 1월까지 설치 완료한다. 향후 휴식공간을 비롯해 이용자 편의를 위한 주차장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앞으로 민락저류지가 스몰 스포츠파크로 조성되면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도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시는 시민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언제라도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복지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한다.

우선, 공사 중인 민락2지구 내 민락국민체육센터(민락동 880번지)를 시작으로 권역별 국민체육센터를 단계적

으로 건립한다. 또 민락동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정구 규격의 풋살장 2면을, 녹양동에는 축구장과 육상트랙이 있는 보조경기장을, 호원동에는 4면 규모의 실내 배드민턴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옛 기무부대가 있던 호원동 직동근린공원 내에는 바둑전용경기장(호원동 403번지)을 건립한다. 다양한 바둑 교육 프로그램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외 바둑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고착된 군사도시 이미지를 벗고 '글로벌 바둑문화도시'라는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창출할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앞으로 의정부시는 생활과 체육이 어우러진 스포츠 복지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

# 산업안전 경북을 위하여

##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합시다!

**추락위험 방지**

**끼임위험 방지**

**안전보호구 착용**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호망 등 안전조치 철저**

**건설기계 등 설비 수리·점검 시 운전정지 등 안전조치 철저**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지급 및 착용, 상시점검 등 철저**



# 강원도, “과학적인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생물개발 적정성 여부 판단 계획”

## 환경영향심사의 결과를 통한 지하수 영향여부 객관적 증빙 가능

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15일 원주시청에서 최근 원주시 신림면 송계리 일대 생수공장 설립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도는 생물개발 실시 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결과, 임시 허가를 불허할 사유가 없으므로 임시 허가를 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개별 법령상의 인허가는 해당부서에 기한 내 별도로 득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임시 허가 후 생물개발 업체는 2년 이내에 환경영향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생물개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환경영향심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취수량 및 생물개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환경영향조사란 ①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②적정취수량, 영향범위 및 포획구간, ③환경지질학적 피해, ④수질을 조사하는 것으로 생물 등의 개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



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절차로서, 생물개발로 인한 주위 지하수 고갈, 영향범위 산정, 지표수의 지하수로의 유입으로 인한 지하수 환경오

염, 지질학적 예상 피해까지 예측·조사하여 해당지역에 개발 가능한 지하수의 양 및 수질을 조사하는 것으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환경영향조사의 심사는 지방환경청이 운영하는 환경영향심사위원회(주민 추천 전문가 4인 이내 참여 가능)에서 수행하며, 환경영향심사에 따라 취수량이 조정 된다.

또한 도는, 환경영향심사 결과를 반영한 취수량으로 생물개발 허가를 득하더라도 매 5년마다 환경영향조사 재실시, 취수량 및 수질의 정기 보고, 매년 생물개발 허가 업체의 정기 점검(민간인 참관 가능)을 통하여 주변 지하수 고갈과 지형 변화 등의 영향을 세밀하게 살펴 볼 계획임은 물론 도내에서 제조한 먹물의 품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 "천안아산역, 이민청 설립 최적지"

## 정부 이민청 계획, 김태홍 충남지사 천안·아산 추천 "환영"

박경귀 아산시장은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최적지는 KTX 천안아산역 일원”이라고 말했다.

이민청 설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한 이후부터 준비해 온 대표 정책으로, 앞서 지난 14일 김태홍 충남지사는 도청 기자회견에서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면서 “천안아산역 지역 설치를 위해 여·야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박경귀 시장 역시 “천안·아산 지역에 이민청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김태홍 지사의 노력에 아산시도 적극 동참하겠다”면서 “인구급감 위기 극복,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산업기반 붕괴 예방, 지방소멸 핵심 대응 등을 위해 이민청 설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지원 사격했다.

그러면서 KTX 천안아산역 일원을 이민청의 최적지로 제시한 배경으로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아 기관 이용 수요가 높은 점 △전국 최대 광역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설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의 중심지라는 점 등을 꼽았다.

실제 충남 제조업의 48%가 천안·아산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 참여 비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지만, 충남은 저출산·고령화 인구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비율(6.2%)은 전국 광역 정부 중 1위이며, 아산시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10%에 달해, 전국 평균(4.4%)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박 시장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조에 맞춰 비수도권에 공공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이민청 비수도권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충남, 그중에서도 KTX 천안아산역 일원은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비수도권 지역이다”라면서 외국인 주민이 많은 경기, 인천, 서울의 수요까지 담당할 수 있다는 강점도 내세웠다.

이와 함께 KTX 천안아산역 일원의 교통·생활 환경도 경쟁력 있는 요소로 제시했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KTX 천안아산역에 상업·판매·호텔·의료 등의 기능을 담은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복합 환승센터를 2029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는 수도권을 30분 이내로 오갈 수 있는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에, 생활 인프라까지 갖추게 된다. 아산시가 이민청 신설에 따라 이주해야 할 공무원들도 이 지역을 선호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이유다.

박 시장은 “아산시는 천안시와 함께 충남도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외국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이민청 설치를 위한 범시민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원호/기자



# 충남도, '6년 전 가격 분양 아파트' 최고로 짓는다

민선8기 힘쎈충남이 역적 추진 중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내포신도시 첫 사업의 청사진이 나왔다.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싼 임대료를 내며 살다가 6년 전 분양가로 구매할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민간 아파트에 밀리지 않는 품질 좋고 안전한 주택으로 건립할 방침이다.

도는 18일 도청 상황실에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기본설계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태홍 지사와 김광현 총괄건축가, 충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 설계사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추진 경위 보고, 설계안 보고,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택 마련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김 지사는 지난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상생 협약을 맺고 5000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입주자는 주

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6년 거주 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확정된 분양가에 공급받을 수 있어 다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이 감정평가액으로 분양 전환되는 데 비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번 보고회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의 첫 사업인 내포신도시 내 공공임대아파트에 관한 것으로, 건축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탄소중립 효과, 입주자 편의 효과 분석 등을 공유했다. 내포신도시 첫 사업으로는 흥복읍 한울초 인근 6만 8271㎡ 부지에 949세대(전 세대 84㎡·옛 34평형)를 공급한다.

2026년 입주를 목표로 내년 착공에 돌입하며,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디엘이앤씨가 선정됨에 따라 아파트 브랜드는 임대주택 명칭이 아닌 '이(e)편한 세상'이 공급된다.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건축 규모는 지하 1층·지상 25층 10동으로 전 세대를 남향 배치하고 통경축(30m), 동 간 폭은 이격 거리(80m)를 확보해 채광과 환기, 사생활 보호 등 주거 환경을

극대화한다.

주차장을 지하에 조성해 보행 친화 단지화하고, 지상은 중앙공원과 특화공원, 주제별 산책로 등을 포함한 2만 4000㎡ 규모의 근린공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을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충남'에 걸맞게 목구조로 건립할 예정이며, 태양광 패널과 경관 조명, 커튼월 등을 사용해 차별성·상징성을 갖춘 디자인 특화 아파트로 조성한다.

세대 내에는 현관·주방·다용도실 수납 공간을 만들어 거주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가사 효율을 높이며, 분양 전환 시 가족 구성원 변화와 생애주기 등을 고려해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도록 가변 계획을 마련했다.

아울러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및 불박이장, 현관 중문, 청정환기시스템, 고성능 바닥구조 등 주거 특화 기술을 적용해 입주자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비 경감도 지원한다.

이번 사업으로 85개 지역업체가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

며, 에너지효율 1++등급,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확보 등 제로에너지 5등급, 녹색건축인증, 전기차 법적 대비 170% 확보 등을 추진해 친환경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탄소중립도 실현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공공임대주택”이라면서 “그간 공공임대 주택은 값싼 주택, 품질이 낮은 주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으나 충남은 이러한 이미지를 타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집 없는 사람들에게 전월세로 시작해서 자가 소유로 도약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주거 사다리'를 확실하게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청년연계 결혼을, 신혼부부에게는 출산율, 아이들에게 희망을 키워주며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는 사업”이라며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미래를 건설한다'는 마음으로, 또 충남이 공공임대주택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자부심으로 모두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기념 범도민 축하행사 성료

##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164만 충북도민 염원의 실현

충청북도는 16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기념 범도민 축하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변재일 국회의원, 이상정 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 안지윤, 박지현, 이옥희 도의원, 이두영 민관정공동위원장, 유철웅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장 등 사회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했

다. 김영환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은 그간 억압받던 충북의 독립 선언이며, 1896년 충청북도 개성 이래 가장 의미있는 역사적인 사건인 동시에 164만 충북도민 염원의 실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신 국회의원, 도의회, 충북도민회, 시군을 비롯한 164

만 모든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축하행사는 1부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2부는 대중가수 미스트롯2의 김다현, 오승근, 국악 실내악단 '달보드레', 팝페라 가수 '팬텀프렌즈', 도내 어린이 합창단 '충주루체레합창단·중평한별합창단' 공연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고정화/기자

# 태백시, 지역사회 중심 돌봄서비스 강화

태백시는 가족 환경 변화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리 동네 방과 후 돌봄기관 소개 안내서'를 제작해 2024년 취학대상 아동 가정에 취학통지서와 함께 발송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기관을 제공할 계획이다.

태백시 돌봄기관은 지역아동센터 12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초등학교 돌봄교실 12개소로 현재 600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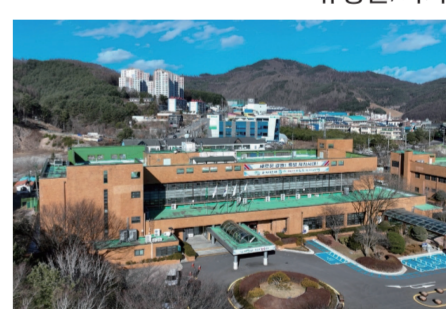
명의 아동이 돌봄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아동에게는 돌봄과 놀이, 학습지원, 급·간식 등이 제공되고 있다.

2024년 3월에는 돌봄기능 강화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활지권 1개소를 추가 확대 운영해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상호 태백시장은 지난 15일, 꽃매달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4분기 생일맞이 행사 프로그램에

함께하며 생일을 맞은 아동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상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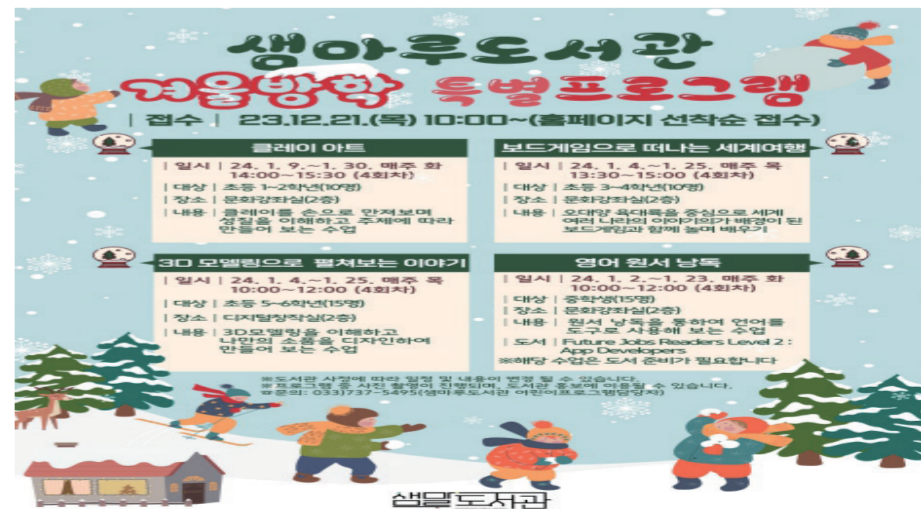


# 원주시 샘마루도서관, 2024년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 운영

원주시립샘마루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과 독서의 생활화를 위해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년 1월 2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4개 강좌로 구성됐으며, 각 강좌별 주제 도서에 대한 독후활동으로 진행된다.

초등 1~2학년 대상으로는 클레이를 손으로 만져보면 촉감으로 성질을 이해하고 주제에 따라 만들어보는 '클레이 아트'와 초등 3~4학년은 세계 여러 나라의 이야기가 배경이 된 보드게임을 하며 세계문화를 배우는 '보드게임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초등 5~6학년 대상으로는 3D모델링을 이해하고 책을 읽으며 상상한 것들을 3D모델링으로 구현하는 '3D모델링으로 펼쳐보는 이야



기', 중학생에게는 영어 원서 낭독을 통해 언어를 도구로 사용하며 집중력과 표현력을 높여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영어 원서 낭독'이 운영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이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체험으로 유익한 생활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서울시, 인베스트서울 외국인직접투자(FDI) 올인원 패키지로 외국기업 서울진출 가교 된다

## IT·콘텐츠, 미국·홍콩 등 다양한 업종·국가로 서울에 대한 다각화된 관심 보여줘

서울시는 투자유치 전담 기구인 인베스트서울(Invest Seoul)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FDI 올인원(All in One) 패키지'를 통해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글로벌 기업 46개사가 서울에 동지를 틀거나, 사업을 확장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IT, 콘텐츠, 바이오 등 서울시가 집중하는 전략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업종별로는 IT(13개), 콘텐츠(5개), 에너지(4개), 바이오(3개), 금융(3개) 등이며, 국가별로는 미국(14개), 홍콩(5개), 싱가포르·중국·일본(각각 4개) 등이다. 특히 2022년 대비 콘텐츠, 바이오, 금융 분야 기업이 증가하여 서울시 전략산업과의 연계가 강화됐다.

'FDI 올인원 패키지'는 서울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컨설팅 비용, 법인 등기, 부동산 임차 등 외국인 기업이 서울에서 활동하기 위한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장

중심의 운영으로 코로나 이후 '서울' 투자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 기업들이 서울진출을 위해 거치는 필수 관문으로 자리 잡았다.

FDI 올인원 패키지는 서울진출을 장려하는 마켓엔트리부터 법인설립을 위한 투자지원, 노무·회계·법률 등 사업 운영을 위한 경영지원, 사업안착을 위한 정착지원을 비롯해 후속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애프터 케어까지 외투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특히, 코트라(KOTRA), 주요 외국환은행,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 국내 FDI 관계기관과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의 전문가집단 파트너십을 통해 '사전 시장조사-현지 법인 설립-투자유치-후속 관리'의 단계별 지원도 촘촘하게 운영 중이다.

2023년에는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니즈파악을 통해 서울진출을 위한 사전 마켓리서치, 비즈니스모델 체계 확립을 위한 비즈니스컨설팅 지원,

기(既)외투기업의 후속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애프터케어를 추가하여 운영했다.

시는 올해 인베스트서울을 중심으로 홍콩, 싱가포르 등 현장에서 서울진출에 관심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유치를 진행했다면, 2024년에는 게임, 콘텐츠 산업 등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투자유치에 나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7월 인베스트서울이 개최한 홍콩 로드쇼를 통해 서울에 진출하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홍콩기업 M사는 "해외 현지에서 서울 마켓엔트리를 위한 A부터 Z까지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유망기업들이 서울에 대한 비전을 인식하고 도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경환 서울시 신산업정책관은 "인베스트서울이 코로나 이후 '서울' 진출을 고려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

하길 바라는 기업들이 초기 단계부터 상담할 수 있는 대표 창구가 된 만큼, 당장 투자유치로 이어지지 않아도 서울의 다양한 인프라, 지원 정책을 경험할 수 있도록 'FDI 올인원 패키지'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하고, '24년에는 콘텐츠, 게임, 바이오 등 서울시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지원을 강화하여 해당 분야 글로벌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광수/기자



# 대전시 일류경제도시 초석! 국가산단 기본협약 체결

## 대전시-LH-대전도시공사, 대전의 100년 미래 먹거리 기반 조성 핵심

대전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도시공사는 대전 내 실질적인 첫 국가산단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대전시는 18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도시공사와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장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사장, 대전도시공사 정국영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일환인 신규 국가산단 15개 중 지방에서 규모가 가장 큰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사업시행사 상호 협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협약에 따라 대전시는 입주기업 유치, 민원 해소 및 기반 시설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주관하고, LH와 대전도시공사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산단 조성 공사를 맡게 된다.

그동안 대전시는 세계적인 R&D 인프라를 갖출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용

지 부족으로 대전에서 성장한 우수한 기업과 지역인재들을 다른 지역으로 빼앗기는 악순환을 겪어야 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장우 대전시장장은 민선 8기 핵심공약 '산업단지+α'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 핵심단초인 나노·반도체국가산단이 지난 3월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고, 4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시는 향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제2 대덕연구특구로 지정하고 대전의 강점인 풍부한 연구 자원을 활용하여 연구 성과를 제품화하는 생산기지로 갖출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장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대전의 미래 100년 먹거리로 양질의 기업 유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전을 우수한 기업과 글로벌 인재가 모여드는 일류경제도시로 도약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내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2027년까지 산업단지 계획을 완료해 2030년 준공할 계획이다.

김원호/기자

# '23년 강원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 해양수산 연관기업 발굴 신규창업 5개사



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19일 오후 2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 사업본부에서 '2023년 강원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올해 진행된 강원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의 추진성과와 결과를 공유하여 강원지역 해양수산 연관기업의 창업·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강원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을 운영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성장을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산업화를 통해 해양·수산업에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3년에는 해양수산 연관 기업을 발굴하여 5개사가 신규로 창업을 했고, 55개사 기업지원을 통해 매출 83억원 증가, 130명의 신규 고용창출 성과를 달성 했으며, 해양 심층수를 활용한 프리미엄 아쿠닉 심층수 비누(강원 심층수), 미세조류 함유 수출용 반려동

물 영양제(마이크로알지에스크어스), 공물에 침지한 양면 먹태(디에스홈푸드), 동결건조 가자미·방어·양미리 이용 애완견 간식(동해형씨), 구멍쇠미역 추출물 크림(앤바이오스), 연어과 부산물 함유 나노콜라겐 앰플(신성바이오팜) 등 20여종의 다양한 해양수산 연관 신제품이 개발되어 상용화 됐다.

2024년에는 202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 판로 개척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강원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양수산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최우홍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연관 기업에서 개발된 제품과 신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도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해양수산 연관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남원시 · 전북대학교**



미래를 이끄는 전북대  
Global TOP 100

## 전북대 글로벌대학30 선정

# 폐교 서남대가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로 다시 태어납니다!







# 경북교육청, 경북교육장학회에 연말을 맞아 따뜻한 장학금 기탁 이어져

## 경북교육청, 경북교육장학회에 연말을 맞아 따뜻한 장학금 기탁 이어져



경상북도교육장학회는 18일 본청 응비관에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상북도회, 경상북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장학금 기탁식을 했다. 임중식 이사장(경북교육감)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상북도회 김성환 회장, 경상북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이주희 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기탁식에는 지역사회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각 1,000만 원씩 전달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상북도회는 도내 421개의 기계설비 가스공사업과 기계설비 성능 점검 등록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다.

아울러, 경상북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시군별로 각급 학교운영위원장 시군별 협의회장을 선출하고,

22개 시군 협의회장이 모여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연례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김성환 회장과 이주희 회장은 “다양한 꿈과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지속적인 기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임중식 이사장은 “경북의 학생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기부를 실천해 주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상북도회, 경상북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꿈과 목표를 이뤄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윤근수/기자

# 울산 강북교육지원청, “자녀의 중학교 생활 미리보기”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은 강북 지역 예비 중1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환기 진로 연계 교육을 진행해 중학교 생활 준비를 도왔다.

강북교육지원청은 15일 오후 1시 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 이종산홀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8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북 자유학기제 학부모 연수 - 중학교 생활 미리보기’를 진행했다.

‘중학교 생활 미리보기’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의 중학교 생활에 대한 막연한 걱정을 해소하고 이해를 도모해 학생의 원활한 중학교 생활 적응을 돕고자 기획했다. 강북교육지원청은 이번 행사에 앞서 지난해 선착순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학부모의 신청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 국가전로교육연구원 방혜진 전문연구원은 ‘자녀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진로 지도’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어 중학교 교사 두 명이 강사로 나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초등학교와 달라지는 중학교 생활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으로 초·중등 시기 가정에서 필요한 진로·진학 활동,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 중학교 교육과정과 자유학기제,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기재 내용, 내신 성적 산출과 진학 등을 안내했다.

황규진/기자

# 경북교육청, 학교 감염병 대응 예방관리 전문팀 운영 협의회 개최

## 학교 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관계기관 간 대응 체계 수립

경북교육청은 18일 본청 홍익관에서 학교 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관계기관 간 대응 체계 수립을 위한 ‘학교 감염병 대응 예방관리 전문팀 운영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교육청이 주관한 이날 협의회에는 교육지원청, 경북도청, 안동시 보건

소, 경상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 동국대학교 관계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의회 내용으로 최근 호흡기 감염병 환자 발생 증가에 따른 발생 현황을 공유하면서 감염병 상황 진단과 향후 기관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감염병 대응 예방관리 전문팀은 반기별 1회 운영을 정례화하고 감염병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수시로 운영하여 감염병 발생 현황과 대처 방법

을 공유·협의하여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중식 교육감은 “이번 협의회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감염병 예방 대응 체계와 관리 계획을 수립·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염병 유행 확산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경북교육청은 지속해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알아두면 쓸데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

영주서부초등학교는 지난 18일(월) 2, 3교시 4학년, 5학년 대상으로 강당에서 경상북도 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전문 성교육 전문가 강사를 초빙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하였다.

이 교육은 아동·청소년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채 인터넷 혹은 또래 등에 의해 그릇된 정보를 습득하여 자칫 왜곡된 성 가치관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과 아동·청소년의 알권리로서 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성평등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나의 몸을 보호하며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함이다.

이날 교육활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은 범죄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강의로서 PPT를 활용한 영상물을 통해 성범죄 상황을 보여 발생될 수 있는 성범죄에 대한 상황 대처법, 온라인을 통해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관한 대화와 토론, 예방법을

다루었다.

학생들은 아동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실험 영상을 보여 만약 나라면 어떻게 할까? 등의 토론을 펼치기도 하며 적극적인 대처할 방법을 알게 되어 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세락 교장은 몸과 마음의 성장이 빠른 아동·청소년들이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성문화가 온라인에서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어긋나고 그릇된 정보를 받아들여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시기에 가장 효율적인 예방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며 이런 예방 교육이 매년 실시되길 강조하였다.

정금자/기자



# 부산교육청, 도서관 직원 정책 수립 역량 키운다

## 19일 도서관 직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은 19일 오후 2시 부산시민도서관 시민소리실에서 시교육청 소속 도서관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직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공공도서관의 최신 트렌드 등을 알려줘 직원들의 미래 발전적 도서관 정책 수립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 연수에는 조금 주 Next Library 대표가 ‘해외 공공도서관의

최신 건립 경향’과 ‘공공도서관계의 최신 트렌드 및 이슈’를 주제로 강의한다.

조 대표는 서울시 서초구립도서관 대표 관장 겸 반포도서관장을 역임했고,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힘, 도서관’, ‘내 마음을 설레게 한 세상의 도서관들’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성소연 시교육청 기획조정과장은 “이번 연수가 도서관 직원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정보 공유 등 소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사회 변화에 발맞춘 도서관 정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봉화교육지원청, 미래인재기르기 지역협력단 연수개최

봉화교육지원청은 12월 12일 2023 미래인재기르기 지역협력단 위원 19명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개최했다.

‘미래인재기르기 지역협력단’은 봉화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 녹색어머니회, 상담·복지 센터,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등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로 교육기부 정보 공유, 기부 자원 발굴 및 지역 단위의 기부 활동 독려, 지역 내 교육기부자(프로그램) 심사 관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봉화교육지원청 ‘교육기부 활성화 기본 계획’ 안내 및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의 교육기부 사례

발표, 협의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기부 활성화 위한 협의 시간에는 각 기관·단체별 활동 홍보 및 교육기부 분야 소개가 이루어져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부 제공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됐다.

양춘희 교육지원과장은 “각 기관·단체 협업을 통하여 교육기부 정보를 공유 및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성화를 통하여 포용과 나눔의 교육기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봉화교육지원청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2024

1월13일~14일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경기장 개최

##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대회

‘겨울스포츠의 꽃’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대회가 2024년 1월13일~14일 이틀간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묘기에 가까운 경기를 펼치면서 짜릿한 스릴과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 ▶ 2024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1월 13일 ~ 1월 14일)
- ▶ 2024 청송전국아이스클라이밍선수권대회 (1월 6일)
- ▶ 2024 청송전국아이스클라이밍페스티벌 (1월 7일)

\_ 장 소 :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경기장

주최 : 국제산악연맹, 아이스클라이밍위원회, 대한산악연맹      주관 : 청송군, 경상북도산악연맹



# 서울시, 전국 최초 자립준비청년 교육 '배움마켓'으로 "진짜 자립" 지원

금융·주거·노동·법률 등 실생활에 필요한 분야로 구성, 자기이해 위한 인문학 교육도



서울시 '배움마켓' 수요자 후기  
# "경제적인 부분들이 막연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주거와 금융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확립할 수 있어 개운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아직 일을 해본 적이 없지만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법과 4대보험에 대한 내용 등 미래를 위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수업이었습니다."  
# "인문학이 결국은 나를 짊어 보는 학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감명깊은 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이라는 말이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보호 종료'는 진짜 자립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이들에게 자립생활은 하나부터 열까지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것 투성이다. 살 집도 구해야 하고, 공과금도 직접 내야 하며, 학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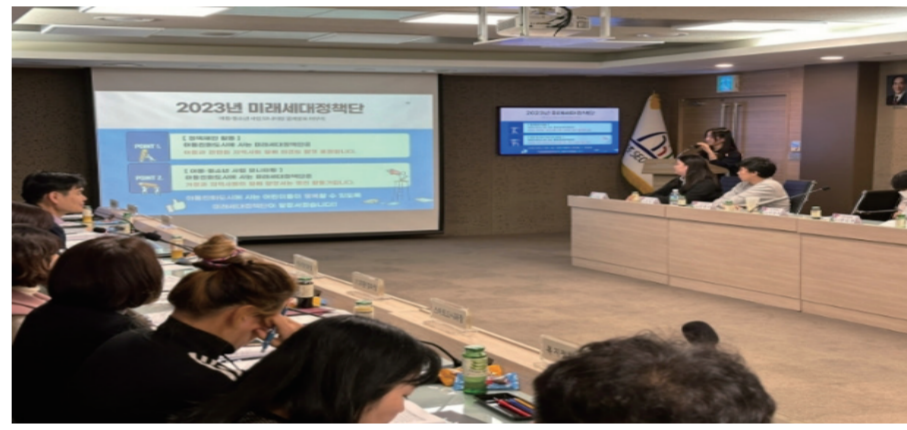
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런 일들이 누군가에게 어렵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가르쳐줄 어른이 없었던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모든 게 도전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돼 시설에서 나와 생활해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1,700명으로, 서울시에서만 매년 260여 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예비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만 15세부터 보호종료 시까지의 아동을 말한다.  
서울시는 (예비)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 종료 이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실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자립역량교육 '배움마켓'을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이달 11일을 끝으로 '배움마켓'의 2023년도 교육이 모두 마무리됐는데, 약 5개월 간 총 707명의 (예비)자립준비청년이 참여해 교육을 이수할 정도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참여 청년들의 교육 만족도는 평균 4.4점(5점 만점), 교육별로는 '금융 교육'이 4.6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배움마켓'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종료 후 겪는 일상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주거·노동·법률·인문학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과 마음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강의들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종합교육 프로그램이다. '배움마켓'이라는 명칭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원하는 때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자립준비청년 집단면접(FGI)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방향과 내용을 정하고, 선배 자립준비청년 강사 양성을 통해 실제 교육 진행 시 선배가 함께하는 등 교육 전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도를 높였다.  
'금융·주거 교육'은 자립에 가장 필수적이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수요가 가장 많은 교육이다. '금융교육'의 경우 신용관리와 대출, 금융사기 예방, 첫 독립자금 사용계획과 금융상품 이해 등의 내용이, '주거교육'은 주거환경 점검과 계약하기, 집수리 시 집주인과 세입자의 책임 범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법률 교육'의 경우, 아직 구직·직장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을 위해 구인 광고 훑어보기, 근로계약서 작성하기와 4대보험, 직장 내 괴롭힘 대처하기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달한다.  
인문학 교육은 타로카드를 활용한 자기이해, 영화를 통한 나를 수용하기 등 자신을 마주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2024년부터는 자기이해에 더해 타인·공동체 이해, 자립 동기부여 등 주제를 확대하여 내면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성장의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인문학 강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호종료 전후 (예비)자립준비청년이라면 누구나 '배움마켓'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영플러스서울(0+SEOUL)'에 위치한 교육장(+SEOUL)에서 주로 주말과 방학기간에 강의를 진행한다.  
'영플러스서울(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옴프렌즈 102동 2층)'은 휴식·소통공간인 '카페 영(Cafe0)'과 교육공간인 '플러스서울(+SEOUL)'을 포함해 상담 및 자

조모임·스터디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운영 중인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립준비청년 '배움마켓'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자체 최초의 종합계획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을 발표한 이후 매년 개선·보완된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올해 8월부터는 기존에 만족도 높았던 사업 위주로 확대·강화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을 추진하고 있다.  
'자립정착금' 확대(1,500만원 → 2,000만원), 대중교통비 지원(월 6만원), '인생버디 멘토단' 구성·운영, '우리끼리 여행캠프' 규모 확대(10팀 → 30팀), 문화·힐링 프로그램 신설 등 자립준비청년의 꿈과 첫출발에 동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2024년도 '배움마켓' 교육과정 및 일정은 2024년 1월 중 개설 예정인 '배움마켓' 누리집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교육 신청 및 이수증 발급 등 관련 서비스도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보호 종료 후 일상은 매일매일이 도전이다. 자립이후를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자립을 위한 사전준비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며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 종료 전부터 '배움마켓'을 통해 자립생활에 꼭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노하우를 배워 첫 독립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배움마켓'은 연중 수시로 열려 있으니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땐 언제든지 찾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서초구 정책,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듣다! 아동·청소년으로 구성된 '아동참여기구'가 직접 참여..구정사업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서울 서초구는 지난 15일 서초구청 대회의실에서 서초구 아동참여기구 위원과 함께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정책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22년부터 아동관련 사업 부서장들로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정기회의는 올 해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추진 현황과 아동의 견·수령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서초구의 '아동참여기구'에서 참여해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는 9세~24세 청소년으로 구성된 '서초구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18세 미만 아동으로 구성된 '서초구 미래세대 정책단' 등 2개의 아동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모니터링은 지난 8월부터 ▲서초그림책도서관 ▲양재천 수영장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양재천 천천투어 ▲서초형 안심보행길 조성사업 ▲찾아가는 상담버스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 실시했다. 사전조사 후 실제 현장에 나가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시설을 둘러보는 등 아동의 시각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날 아동참여기구 대표들은 6개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개선사항, 안전점검 등 실제 체험해보고 느낀 장·단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10여 분간 발표했다.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발표 후 검토결과를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니터링 발표에 참가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윤유나 위원(15세, 영동중)은 "서초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현장에 나가 모니터링 하는 경험이 매우 뜻깊었고, 우리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수 있다니 너무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 서초구 아동참여기구는 아동권리 인식조사 실시, 아동권리 홍보 캠페인, 아동·청소년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으며, 내년에 활동할 신규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구는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서리풀 난장판' 축제 개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 ▲전국 최초 영·유아 장애 예방 시설 '서초아이발달센터' 운영 ▲공공형 실내놀이터 '서리풀 놀이학교' 운영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여, 아동이 살기좋은 '아동친화도시 서초'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흥수/기자



## 쌍용건설,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 견본주택 15일 오픈

전용 84~113㎡, 총 1,340가구 규모 브랜드 대단지... 평택 첫 '쌍용 더 플래티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GTX 추진 지제역 인접... 공세권, 학세권, 슬세권 입지 자랑  
26일 특별공급, 27일 1순위 청약... 재당첨 제한 및 거주 의무 없고, 6개월 후 전매 가능

쌍용건설은 15일 평택시 지제역 반도체밸리(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조성되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이 아파트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공동 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동, 전용면적 84~113㎡, 총 1,340가구로 조성된다. 지제역 반도체밸리 내 공동주택 3개 블록 중 가장 큰 단지로, 타입별 가구수는 ▲84㎡²A 896가구 ▲84㎡²B 114가구 ▲113㎡² 330가구다.  
청약일정은 오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1월 5일 당첨자 발표 이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은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아파트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평택시 및 전국 만 19세 이상이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세대주·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거주 의무와 재당첨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인근 고덕신도시, 브레인시티(3년)와 비교해 전매제한이 6개월로 짧은 것이 장점이다.  
금융 혜택으로 자금 부담을 줄인 계약조건도 눈길을 끈다. 먼저 계약금 10%를 1, 2차 분납제로 적용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으며, 계약시 500만원만 있으면 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2차 계약금의 경우는 자납시 연 7.3%의 예금 금리와 같은 이자금액을 계약자에게 전달하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신용대

출로 납부 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여기에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인 만큼 1차 중도금 납입 전 전매가 가능한 것도 강점이다.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직선거리 950m(동문 P2기준)로 가깝고, GTX-A, C노선 연장이 사실상 확정된 평택지제역이 인접해 있는 직주근접형 단지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평택송탄일반산업단지, 평택장달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예정), 카이스트 평택캠퍼스(계획) 등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단지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내에서 유일하게 약 7,700평 규모 대형 근린공원이 연결되는 '공세권' 아파트로 주거쾌적성이 탁월하다. 여기에 초고(예정, 130m 거리), 유치원(예정)이 인접한 '학세권' 입지까지 갖췄다.  
상업 및 편의시설이 들어설 준주거지가 단지 바로 옆에 있는 '슬세권' 입지와 홈플러스, CGV, 아주대 병원(예정) 등도 인근에 자리해 주거 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이 단지는 평택시 첫 '쌍용 더 플래티넘' 아파트로 국내외 다양한 랜드마크와 최고급 아파트 시공실적을 보유한 쌍용건설만의 독보적 기술과 노하우가 담긴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전 가구 남향 위주 배치와 4베이 판상형 설계를 도입해 채광 및 통풍, 개방감을 높였다. 타입별로는 알파룸, 현관/주방 팬트리,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으로 수납공간과 공간활용도를 극대화했다.

단지 내부는 100% 지하주차장 설계(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제외)를 적용해 공원형 단지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지상공간에는 대규모 잔디마당,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 등 다양한 조경시설이 마련된다.  
이 밖에 지제역 반도체밸리 내 최초 실내수영장(4레인)을 비롯해 사우나,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입주민카페, 스터디룸 등 커뮤니티와 어린이집, 경로당, 다함께 돌봄센터, 맘스태이션(2개소) 등도 들어선다.  
분양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날 GTX-A노선 현장 점검에서 GTX-A는 평택까지, B는 춘천까지, C는 천안아산까지의 확장 계획을 직접 언급하고, 연내 관련된 추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며 "특히 입주주민을 위해 종로엠스쿨과 손잡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2년간 무상 제공하고,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을 활용해 전용강좌도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은 청약접수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청약 자랑' 이벤트를 실시한다. 청약신청자 전원(특별공급 및 1순위)을 대상으로 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다.  
양시현/기자





경북의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 경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유산보고이자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에 도전합니다!

